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생전」의 교육 방안 모색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은진

# 「허생전」의 교육 방안 모색

심치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은진

# 인 준 서

이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는 「옥갑야화」가 『열하일기』 중 한 부분이며, 「옥갑야화」 중에서도 ‘허생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독 작품으로서 「허생전」을 다루는 것 보다 「옥갑야화」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허생 이야기’를 가르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옥갑야화」의 구조를 세밀히 분석하고 나서 현 교과서의 교육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고전소설의 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종전의 「허생전」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수·학습현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존 교과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허생전」을 수록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옥갑야화」를 중요하게 다루거나 「허생전」의 출처로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국어과 교과서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딛고, 보다 효과적인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를 교육하기 위하여 본고의 논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암은 실학자로서의 자신의 주장을 『열하일기』를 통해 나타내었고, 치열한 당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자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를 통해 정책적 북벌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사대부층의 위선과 무능,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연암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열하일기』 중에서도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

로 하나의 작품을 작가의 의도에 맞게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진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허생전」도 전체적인 틀 안에 넣고 유기적인 내용적 연관성을 찾아 작가의 시대와 의도를 파악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고전작품은 현대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재창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방식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냥 고여 있는 물처럼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반복할 뿐이다. 박지원이 쓴 ‘허생 이야기’는 18세기의 기록으로 정지해 있지 않고 후대에도 문학의 제재로서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현대에 와서 문학작품의 제재가 되는 것은 ‘고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에 이르러 어찌하여 ‘허생 이야기’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충분하다.

학습자에게 좀 더 흥미롭게 고전을 전달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현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그러한 방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전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고전을 단지 옛 것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현대의 것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의 교육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생’을 단지 옛 것이 아니라 현대에 되살리는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세 작품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3차시에 걸쳐서 실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반응 중심 학습과 모듈학습을 주된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나아가서 이를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원전을 이해하게 된다면, 고전교육이 기존의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전과 현대의 연결 통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박지원의 「허생전」, 『열하일기』, 「옥갑야화」,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 이광수의 「허생전」, 채만식의 「허생전」, 이남희의 「허생의 처」, 독자 반응 이론, 반응 중심 학습, 고전의 현대화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방향 ..... 1
2. 연구사 검토 ..... 6

### II.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 ..... 13

### III.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

1. 이광수의 「허생전」 - ‘허생 이야기’ 안에 다양한 일화들의 향연 ..... 26
2. 채만식의 「허생전」 - ‘알기 쉽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 33
3. 이남희의 「허생의 처」 - ‘허생’ 뒤집어 보기 ..... 41

### IV. 7차 교과서 속 「허생전」의 수록 현황과 문제점

1. 고등 『국어(하)』 ..... 47
  - 1) 단원설정의 문제와 소단원과의 연관성 ..... 47
  - 2) 학습활동의 적합성 ..... 49
2. 교학사(구인환 외 5인) 『문학(상)』 ..... 53
  - 1) 단원설정의 문제와 제재 선정 ..... 53
  - 2) 학습활동의 적합성 ..... 54

### V. 「옥갑야화」를 포함한 「허생전」의 교수·학습방안

1. 학습 지도 계획 ..... 59
  - 1) 『국어(하)』 교과서의 교수·학습 계획 ..... 59
  - 2) 본시 교수·학습 방안을 위한 수업 모형 ..... 62
2. 「옥갑야화」를 포함한 「허생전」의 실제 교수·학습 방안 ..... 66

### VI. 결론 ..... 85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 방향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허생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허생전」을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서 알고 있다. 이제껏 교과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허생전」을 지도해 왔고, 학습자들은 그렇게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허생전」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권 10의 「옥갑야화」에 실려 있고, 이 책은 연암이 1870년 중국을 여행하고 와서 지었던 책이다. 「옥갑야화」란, 옥갑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밤에 나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허생전」은 연암이 윤영이라는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허생전」을 수록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옥갑야화」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허생전」의 출처로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저 「허생전」은 연암의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학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작가인 연암의 창작 의식이 작품 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교과서 속의 본문학습으로서 실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정된 시각으로만 「허생전」이라는 작품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물론, 「허생전」이 가지고 있는 학습 제재로서의 요소들은 인정할 만하다. 이 작품은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시대와 사회를 통찰력 있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통해 학습자가 작품을 수용하면서 문학의 가치와 효용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제재로서의 부분만을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주입식의 지루한 교수·학습방식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에게 보다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옥갑야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본 연구의 방향이다.

「허생전」이라는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열하일기』 중 「옥갑야화」에 실려 있다. 또 ‘허생의 이야기’는 연암이 따로 떼어내 「허생전」이라 명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서 따로 독립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傳)의 형식으로 전한 것이다. 이러한 완결성의 측면에서, 또 제한된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허생전」만을 독립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가르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 학습자들이 「허생전」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현재 우리 교육과정상의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옥갑야화」속의 여러 비장들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고, 또 허생의 이야기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갑야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박지원이 작품을 통해 알리고자 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허생전」은 연암이 자신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구현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은 이 작품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려고 했다.<sup>1)</sup> 연암은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명(明)에 대한 사대주의와 낡은 관습을 타파하려는 선진적 지

---

1) 박지원,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상』, 보리, 2004, p.540.

식인으로서의 허생의 형상을 창조했다.<sup>2)</sup> 연암의 시대는 성리학이 쇠퇴하고 실학이 대두되고 있던 시기였다. 연암은 실학자로서의 자신의 주장을 『열하일기』를 통해 나타내었고, 치열한 당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자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를 통해 실학에 기반 하여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벌론’을 간접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암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열하일기』 중에서도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문의 II장을 통해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하나의 작품을 작가의 의도에 맞게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허생전」의 교육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허생전」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종전의 교육과는 달리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교육하는 것이다. 「허생전」을 단독 작품으로서가 아닌, 어떠한 배경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작품인가, 고전소설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작품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생전」을 전체적인 틀 안에 넣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열하일기』를 모두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열하일기』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한자(漢字)로 지어진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문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허생 이야기’를 작가의 의도에 맞춰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옥갑야화」로 한정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

2) 김경화,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p.18.

학습자들이 「옥갑야화」 속의 ‘허생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옥갑야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연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허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굳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허생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작품의 배경지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파악하게 된다. 우리는 지루한 고전이 아닌, 또 역지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흥미를 살리는 재미있는 고전 가르치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허생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작품을 통해 학습자에게 당대의 사회 문화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학습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학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고전을 고전으로만 가르치려는 오래된 성향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의 고전 교육도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

고전작품은 현대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재창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방식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냥 고여 있는 물처럼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반복할 뿐이다. 박지원이 쓴 ‘허생 이야기’는 18세기의 기록으로 정지해 있지 않고 후대에도 문학의 제재로서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현대에 와서 문학작품의 제재가 되는 것은 ‘고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에 이르러 어찌하여 ‘허생 이야기’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충분하다.

학습자에게 좀 더 흥미롭게 고전을 전달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현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그러한 방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전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고전을 단지 옛 것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현대의 것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의 교육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는 「허생전」을 『열하일기』에 속해 있는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로서 이해하게 된다면, 학습자에게 학습제재로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허생’을 단지 옛 것이 아니라 현대에 되살리는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허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옥갑야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허생전」이 실려 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고, 잘된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점을 살피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허생전」이, 그리고 「허생전」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교수방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모형까지 세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허생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고전 문학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연구사 검토

「허생전」에 대한 역사적, 또는 소설 작품 자체의 분석 자료는 많아도 「허생전」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박지원의 「허생전」을 「옥갑야화」의 구조 속에 포함시켜 분석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가원<sup>3)</sup>의 『연암소설연구』에서는 「허생전」을 ‘허생연구’라는 제목으로 놓고 ‘허생의 이야기’로 전제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연암 스스로가 허생의 이야기만을 따로 떼어 놓지도 않았으며, 전(傳)이라던가 소설이라고 정하여 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허생 이야기’는 「옥갑야화」로서 이해해야 하며, 「옥갑야화」의 후지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두와 후지의 내용, 제 1화부터 제 7화까지의 구성이 존재하면서 그 안에 ‘허생 이야기’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이재선<sup>4)</sup>은 허생의 이야기가 「옥갑야화」라고 하는 일종의 순환론적 액자소설 속에 들어 있는 제 7장에 속한다고 보고 「옥갑야화」 전체를 한 편의 소설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황패강<sup>5)</sup>의 『조선왕조소설연구』는 ‘허생 이야기’를 「허생전(許生傳)」이라고 명명하고 전지와 후지 등의 내용은 허생이 어떠한 부류의 인물인 듯이 인상을 주려고 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허생이라는 인물에 중심을 맞추고 그의 행동과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맥락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현재 교과서에 실려 교육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근접하다.

박기석<sup>6)</sup>은 『박지원 문학연구』에서 「허생전」이라고 하고, 내용도 허

3) 이가원,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965, pp.585~734.

4)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pp.135~138.

5) 황패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대출판사, 1978, pp.339~348.

6) 박기석, 『박지원 문학연구』, 삼지원, 1984, pp.73~75.

생의 이야기만을 따로 떼어 논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박지원은 허생의 전(傳)을 쓰는 데 있어 윤휴에 의해 제보 받은 내용을 단순히 기록화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창작의식과 문장력을 개입시켜 작품으로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동엽<sup>7)</sup>은 『열하일기연구』에서 허생의 이야기를 『열하일기』 속의 한 구성으로 보고 문체 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옥갑야화」의 서두와 1화~7화, 후지를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허생의 이야기에서 절정의 이루는, 사회적 현상의 비판적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동<sup>8)</sup>은 『연암 박지원 소설연구』에서 일곱 개의 일화 전체를 「옥갑야화」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김명호<sup>9)</sup>는 『열하일기연구』에서 「허생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옥갑야화」가 그 자체로 완결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역관과 중국 무역에 관한 서두부와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번 거금으로 이상촌(理想村)을 건설하여 빈민들을 구제한 이야기, 그리고 어영대장 이완을 만난 허생이 북벌(北伐)을 추진하던 당시 집권 사대부 층의 무위무능(無爲無能)을 추궁한 결말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종래와 같이 그 중 서두부를 임의로 배제한 채 이를 「허생전」이라는 소설로만 다루는 것은 원작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옥갑야화」의 결말부는 소설론의 견지에서 보자면 일종의 사족이요, 허생의 활약상을 그린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후일담 정도의 의의 밖에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옥

---

7) 강동엽, 『열하일기연구』, 일지사, 1988, pp.104~109.

8) 김영동, 『연암 박지원 소설연구』, 태학사, 1988, pp.75~82.

9)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pp.224~246.

갑야화」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며, 연암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대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석래<sup>10)</sup>는 『조선후기 소설연구』에서 「허생전」은 「옥갑야화」에 속해있는 이야기이지만, 「허생전」을 독립된 작품으로 보고 풍자성에 초점을 두었다. 서두와 1화~7화는 옥갑에서 비장들과 나눈 이야기의 배경이고, 후지에 나오는 윤영은 허생의 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풍자적 요소로 보았다.

이문규<sup>11)</sup>는 『고전소설 비평사론』에서 「허생전」은 대립과 반전의 기법이 훌륭하게 구사된 작품이라고 설명하였다. 허생의 아내와는 가난 때문에 대립하였고, 이 대립은 허생이 장삿길로 나섬으로써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허생과 변부자는 대립적 신분의 표상이지만 변부자가 허생에게 선뜻 거금을 빌려줌으로써 반전된다고 하였다. 또 허생과 어영대장 이완은 현실의 괴리로 이해대립하고 이 대립은 허생이 자취를 감추어 버림으로써 극적으로 반전된다고 하였다.

신병주, 노대환 공저<sup>12)</sup>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에서는 「허생전」은 「옥갑야화」에 속해있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히고서, 허생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하여 인물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경제사상, 북학사상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방법적인 측면과 관련 있는 선행 연구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실제 「허생전」의 교육 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김정문(1991)<sup>13)</sup>을 시작으로 이은식(1996)<sup>14)</sup>, 5차 교과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석규(2002)<sup>15)</sup>와 작가와 생애를 살펴보고 정리한 신

10) 이석래, 『조선후기 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pp.123~138.

11)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pp.95~135.

12) 신병주, 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pp.196~214.

13) 김정문, 「〈허생전〉지도 실제」, 배달말교육학회, 1991, pp.179~194.

14) 이은식, 「〈허생전〉가르치기」, 배달말교육학회, 1996, pp.57~72.

15) 장석규, 「국어 교과서의 〈허생전〉 수용과 그 문제점」, 2002. pp.197~206.

동환(2005)<sup>16</sup>, 「허생전」의 창작배경과 그것에 비롯된 풍자적 기법을 연구한 김철(2006)<sup>17</sup>, 안정민(2006)<sup>18</sup>과 최장원(2006)<sup>19</sup>의 연구, 더 나아가 6차와 7차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좀 더 심화·발전시킨 이영호(2007)<sup>20</sup>와 인물에 따라 작품 구조를 분석한 강창순(2007)<sup>21</sup>, 마지막으로 김진영(2008)<sup>22</sup>의 연구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실제 교수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지는데, 하나는 「허생전」의 갈래 설정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갈래를 제대로 밝히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작품을 있는 그대로, 즉 내용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허생전」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소설의 5단 구성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틀에 짜 맞추어 교육하는데 대한 울분을 제기함으로써 출발한 연구이다.

한문 갈래인 ‘전(傳)’의 짜임 분석은 소설의 삼단 구성과 비슷한데, ‘인물의 가계-인물의 행적-작가의 논찬’으로 되어있다. 인물의 가계는 인물이 ‘어떤 가문인가, 선대의 인물로 어떠한 사람이 있었나.’ 등인데 「허생전」에는 이러한 사실적인 요소는 생략되고 인물이 살아가는 모습만 그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물의 행적은 ‘전(傳)’의 조건과 같고, 작가의 논찬이 「허생전」에는 없는데 이는 ‘전(傳)’에서 생략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이 논찬 부분은 대부분 인물의 결말과 비교하여 작가의 개입이 들어가는 곳인데, 인물의 행적에서 인물의 결말 부분이 드러나 있다면 생략되지만, 행적부분에서 인물의 결말이 드러나지 않으면 논찬

16) 신동환, 「〈옥갑야화〉와 〈허생전〉의 관련 양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p.5~48.

17) 김철, 「〈허생전〉의 작품세계와 교육적 의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6, pp.5~44.

18) 안정민, 「고전소설 지도 방안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2006, pp.6~94.

19) 최장원, 「허생전의 현대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6, pp.8~48.

20) 이영호, 「〈허생전〉의 교재화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3집, 2007. pp.205~228.

21) 강창순, 「고등학교 국어과 고전소설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7, pp.14~52.

22) 김진영,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8, pp.1~20.

이 주로 들어간다. 이런 점에 의거하여 이은식(1996)<sup>23)</sup>은 「허생전」을 5단 구성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전의 삼단구성’도 소개시켜 주어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으나, 이러한 논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있다기보다는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는 달리 김정문(1991)<sup>24)</sup>은 현재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목표가 작품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 등을 바꾸어 학습자들이 좀 더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작품 내용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허생전」을 교육하는데 있어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를테면 갈래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학습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학습활동을 다루고 있다든지 하는 문제, 더 나아가 「허생전」의 원래 주소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수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계해서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고, 「허생전」의 교재화 방안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는 장석규(2002), 이영호(2007)의 연구 등이 있는데, 장석규(2002)는 5차 국어 교과서 속의 「허생전」을 가지고 단원의 구성과 학습목표, 학습활동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뒤에 나올 ‘IV장의 7차 교과서 속 「허생전」의 수록 현황과 문제점’은 장석규(2002)의 연구를 기초로 삼아 분석하였다.

이영호(2007)는 「허생전」의 교육 내용이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 연암의 사상에 대해 학습자들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작품 자체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

23) 이은식, 「〈허생전〉가르치기」, 배달말교육학회, 1996, pp.57~72.

24) 김정문, 「〈허생전〉지도 실제」, 배달말교육학회, 1991, pp.179~194.

「허생전」의 교재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허생전」이 실린 5차와 6차, 7차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도의 주안점을 나열하였다. 끝으로 「허생전」과 관련된 심화활동으로 「허생전」을 개작한 현대소설들을 주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신동환(2005)은 「옥갑야화」 안에서 「허생전」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허생전」 안에서 허생의 행위에 따라 구조가 바뀌고 이러한 구조는 「옥갑야화」의 각 삽화들과 대응하고 있거나 비유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신동환의 연구는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철(2006)은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허생전」을 맥락적인 부분에서 파악해 낸 후 작품 내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작가의 의도와 연결하여 시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허생전」을 읽고, 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안정민(2006)은 현재까지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허생전」이 실린 단원은 언어사용 기능의 학습을 강조하면서, 이를 문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문학을 언어 사용 기능적인 측면에서 교육하게 된다면 문학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은 충분히 지도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의 본질적인 내용이 기본적인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국민 기본 공통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관점이 조화롭게 지도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원(2006)은 「옥갑야화」에 대해 언급만 하고, 허생의 이야기에 초

점을 맞추어 구조 분석을 하고 있다. 「허생전」의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페러디 소설들의 구조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강창순(2007)은 「허생전」의 인물을 분석하여 그 인물들을 따라서 주제를 부각시켰다. 실제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학습 목표를 ‘일상의 국어’와 ‘예술의 국어’ 중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진영(2008)은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소설은 지루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문학 작품이 감상이 아닌 해석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허생전」은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찾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세세한 해설보다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정보를 재조직하면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김경화(2010)의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sup>25)</sup>가 있다. 김경화(2010)는 「옥갑야화」의 액자 구조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당대의 사회 문화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품의 맥락을 이해시키는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생전」을 단독 작품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며, 「옥갑야화」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맥락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 모형을 세웠다. 김경화(2010)의 연구야 말로 본고와 같은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

25) 김경화,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pp.20~50.

## II.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

「옥갑야화」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안에 들어있는 독립된 편명(篇名)이다. 이는 ‘옥갑(玉匣)에서 밤을 지내며 비장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라는 뜻이다. 『열하일기』는 북경에서 열하까지 여행하고 돌아와 저술한 책으로, 그 내용과 체제는 중국여행에서의 견문과 감회를 여행일정에 따라 일기형식으로 기술해 놓은 전반부와 일기 형식으로 기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을 따라 편명을 붙여 모아 놓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옥갑야화」는 후자에 속하는 글이다.

지금까지 「옥갑야화」는 전체 내용보다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허생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허나 아직도 작품의 제목과 범위 규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옥갑야화」를 전반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그 일부 내용인 ‘허생 이야기’를 「허생전」이라 명명하고, 단독 작품만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옥갑야화」전체 내용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초 일부 평론가들에 의하여 「옥갑야화」와 「허생전」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옥갑야화」에서 「허생」 또는 「허생전」을 떼어내어 독립된 작품으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허생전」은 마땅히 「옥갑야화」의 표제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본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옥갑야화」는 흔히 「허생전」이라고 불리는 중심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층을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역관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다 병부상서의 부인을 창가(娼家)에서 빼낸 ‘홍순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정세태’가 망한 이야기로 갔다가, 조선 제일 부자인 ‘변승업’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여기서 연암의 「허생

전」이 ‘나도 윤영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라며 시작 된다. 이렇게 「옥갑야화」는 ‘허생의 이야기’를 비롯한 7개의 삽화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두>**: 사신 일행이 연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옥갑에 도착했다. 밤에 여러 비장들과 침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됨. 옛날에는 북경의 풍속이 순박하고 도타워서 역관들이 만금이라도 서로 빌려 쓰곤 했으나, 지금은 우리 역관들과 북경의 단골집들이 서로 속이는 것이 능사임. 이런 잘못된 풍조는 우리 쪽에서 비롯됨.

**제1화**: 중국의 단골 주인과 조선의 악덕 역관(상인)의 일화 - 삼십년 전 한 역관이 은 삼천 냥을 몰수당해 죽으려 하자 북경의 단골 주인이 만금을 빌려 주었으나 자신의 부를 쌓고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천벌을 받은 이야기.

**제2화**: 군자의 풍모를 지닌 지사(知事) 이추(李樞)의 일화

**제3화**: 홍순연의 일화 - 오천 금으로 기생집에 팔린 처녀를 구해주고, 훗날 병부상서 석성(石星)의 아내가 된 그 처녀에게서 엄청난 대우와 보상을 받은 이야기.

**제4화**: 북경 갑부 정세태의 조손과 그 회계 임가(林哥)의 일화 - 할아버지가 죽자 놀이패에 빠진 손자를 구해 재산을 반 나눠준 이야기.

**제5화**: 흰 털모자 일화 - 옛날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포장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귀국하여 장부와 대조하면 조금도 잘못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상인이 흰 털모자를 사고 돌아와서 골러보니 그냥 흰 모자였다. 그러나 때마침 두 번의 국상을 맞아 두 배를 남기게 되었다는 이야기.

**제6화**: 변승업의 이야기 - 재물을 독점하면 화가 미친다며 늙어서 재산을 흠었다는 이야기.

**제7화**: 허생의 이야기 - 나(박지원)도 윤영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변승업의 이야기를 한다. ‘변승업의 재산은 유래가 있는데, 그 조부때에 허씨(許氏) 성을 지닌 선비 덕분에 나라의 최고 부자가 되었으나, 허생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 아는 사람이 없다. 윤영의 이야기는 이렇다.’

**<허생 이야기>**

**<허생후지 I, II><sup>26)</sup>**

「옥갑야화」는 박지원이 북경여행을 마치고 옥갑이라는 곳에 들렀을 때 여러 비장들과 나눈 이야기들이라고 밝히며 도입부에 기술하고 있

26) 김철조, 『열하일기3』, 돌베개, 2010, pp.218~247.

다. 구체적으로 (1) 중국 상인의 은혜에 대한 조선의 역관(譯官)의 배신과 부도덕성, (2) 조선인 역관 이추(李樞)의 군자적(君子的) 품모, (3) 명나라 때 조선인 역관 홍순언(洪純彦)의 선행(善行)과 이름 모를 중국 여인 및 그의 남편 석씨(石氏)의 보은(報恩), (4) 중국 상인 정세태(鄭世泰)의 손자에 대한 중국인 임가(林哥)의 보살핌과 손자의 이야기, (5) 중국 내 상거래 양태의 변화, (6) 조선의 부자 변승업(卞承業)의 공익적 재물운용 등 6개의 짧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sup>27)</sup>

『열하일기』 안에는 「허생」 또는 「허생전」을 따로 표기하여 명시한 곳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7화의 주인공을 제목으로 써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 7화는 「옥갑야화」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중심삽화이다. 둘째, 제 1화부터 6화까지의 삽화들은 제 7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제 7화 뒤에 이어지는 후지 역시 초점이 제 7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에 관심을 갖고 본고에서 「옥갑야화」로 작품을 확장하여 가르쳐야 함을 논의의 방향으로 잡은 것은 연암의 작품에 나타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존의 「허생전」 교육은 중심내용인 제 7화만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나, 제 7화가 자신의 작품이 아님을 위장하기 위해, 연암 스스로 제 6화까지의 이야기를 마련하였고, 제 7화의 내용마저 윤영에게서 들은 이야기임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옥갑야화」 속의 각각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음을 이해시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제 7화 앞의 6개의 삽화들은 변부자가 가난한 선비에게 만금을 대여한데 대한 이

27) 김정호,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許生傳)>에 나타난 정치의식」, 대한정치학회보14집, 2006, p.270.

해를 돕는다. 제 1화의 첫머리에서 북경에선 옛날에 풍속이 순박하고 도타워서 역관들이 만금이라도 서로 빌려 쓰곤 했다고 전제하였다. 한 역관이 거짓으로 은 삼천 냥을 몰수당했다며 죽으려 하자 연경 단골 주인이 만금을 빌려주었다. 제 3화의 이름난 역관 홍순언이 오천 금을 던져 기녀를 속량시킨 것이나 제 4화에서 연경의 갑부 정세태가 죽고 재산이 남지 않자 그 손자가 광대가 된 것을 목격한 옛날의 회계 임가가 천 금에 그 손자를 속량시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 것은 모두 풍속이 순박하고 도타웠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넷째, 제 6화의 변승업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제 7화에서 작가가 윤영에게 들은 허생의 일화를 유도해 내는 계기가 된다. 위의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갑야화」는 도입 액자와 제 1화부터 제 7화까지의 내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후지’를 통해서 완벽한 액자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옥갑야화」는 전체로써 매우 긴밀한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작품으로 짜여 있으면서 그 속에 또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허생 이야기’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6화까지의 이야기는 돈과 관련된 인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 1화는 신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변부자가 허생에게 만금을 빌려준 일과 허생의 상행위와 관련된 일화로 볼 수 있고, 제 2화는 돈에 초연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 허생의 모습과 비견 될 만하다. 제 3화는 돈을 의로운 일에 흔쾌히 쓰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 4화는 옛 주인과의 정분을 생각하여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어 그의 손자를 돌보는 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변씨가 돈을 빌려준 것과 허생이 십만 냥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 그리고 변부자가 허생의 살림을 도와주는 것에 대응할 수 있다. 제 5화는 중국의 단골 상인과 우리 상

인 사이에 신용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씨가 만금을 허생에게 빌려준 뒤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옥갑야화」는 완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옥갑야화」는 처음에는 돈 이야기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변승업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다.<sup>28)</sup> 그리고 마침내 변승업의 이야기에서 허씨(許氏) 성을 가진 선비가 등장하면서 ‘허생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7) 화에서 비로소 허생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또 윤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설정으로, 박지원 자신이 쓴 「허생전」이 아니며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시 사대부계층들의 비난을 비켜가고자 한 의도로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게 보인다. 허나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들을 두고 어느 것이 맞는가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허생전」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합한 것인지를 분석하려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다.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 옥갑에 돌아와 비장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도 윤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한다.

- 1) 허생은 부인의 성화에 집을 나선다.
- 2) 허생은 변씨에게 가서 만금을 빌린다.
- 3) 허생이 안성에서 과실을 모두 매점매석해서 열 배의 이윤을 남긴다.

---

28) 이러한 점에서 ‘허생의 이야기가’ 「옥갑야화」에 속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첨가된 이야기’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 4) 허생은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
- 5) 허생은 늙은 뱃사공의 말을 따라 무인공도를 답사해 본다.
- 6) 허생은 변산의 도적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한다.
- 7) 허생은 도적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정한 날짜까지 각자 계집 한 사람과 소 한필씩을 데리고 오도록 한다.
- 8) 허생은 도적들을 데리고 무인공도에 도착한다.
- 9) 허생은 농사를 지어 3년 동안 먹을 곡식을 쌓아 놓고, 나머지를 장기도(長岐島)에 가서 팔아 은 백만 냥을 벌어들인다.
- 10) 허생은 오십만 냥의 돈을 바다에 버리고 글을 아는 자를 데리고 섬을 떠난다.
- 11) 허생은 나라 안의 가난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남은 십만 냥으로 변씨에게 빚을 갚는다.
- 12) 변씨는 남산 밑 허생의 집 앞 우물가에서 어느 할멈을 만나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 13) 변씨는 허생의 살림을 도와주는데, 지나치면 허생이 싫어한다.
- 14) 변씨가 허생에게 장사 비법을 묻는다.
- 15) 변씨가 허생에게 남한산성의 굴욕을 갚고자 하는 조정의 움직임이 있음을 말한다.
- 16) 변씨가 허생에게 이완을 소개한다.
- 17) 허생은 이완에게 북벌의 세 가지 방책을 제시한다.
- 18) 이완이 세 가지 모두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자 허생이 이완을 칼로 찌르려 한다.
- 19) 이튿날 이완이 허생을 찾아 갔으나 허생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 **허생후지(許生後識):**

##### **후지 I**

- ① 허생을 명의 유민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한다.
- ② 어느 두 승려가 경상감사 조계원에게 꾸지람을 하고는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
- ③ 조계원이 우암 송시열에게 두 승려의 이야기를 하자 명나라 태학사 손승종의 부하일 것이라고 추측함.

## 후지 II

- ① 윤영에게 처음 허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후 윤영이 연암을 다시 만나 허생의 이야기를 전(傳)으로 지었느냐고 묻자 아직 다 짓지 못하였다고 함. 윤영은 허생의 처가 가엾다고 함.
- ② 윤영으로 추정되는 이생원을 만나 보려 했으나 결국 못 봄.

「허생전」은 허생이 변승업에게 만 냥을 빌려 백만 냥의 돈을 번 전 반부와 이완 대장을 통해 북벌론의 허구를 통렬하게 꾸짖는 후반부로 나뉜다. 우선 1)은 허생의 가난한 생활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내의 말과 같이 도움이 되지 않는 글 읽기만을 하고 있는 선비인 허생을 통해 실학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부터 15)까지의 허생의 시험과 변씨와의 친교를 통해 조선의 열악한 상황을 꼬집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6)에서 19)를 통해서는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sup>29)</sup> 특히 이것은 시사삼책(時事三策)을 통해 두드러지는데, 막연한 배청의식(排淸意識)이 아닌, 북학을 통한 현실 극복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물안의 개구리적인 사대부의 옹졸한 안목을 비판하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높은 차원의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연암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다. 허생은 만 냥을 빌려 매점매석으로 큰돈을 벌어들인다. 이를 토대로 그는 도적을 무인도에 데려가 이상향을 건설하고 일본과 무역해 또 다시 큰돈을 번다. 그 다음에는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빈민을 구제했다. 모두 돈을 가지고 이룬 행위이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실생활이 모두 경제활동과 관련되니 이에 대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 무역이 개선

29) 김경화,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pp.24~26.

되고 장려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연암의 진짜 의도는 북벌론을 공격하는데 있다. 허생은 이렇게 돈을 벌고 빈민을 구제한 것을 “나의 조그만 시험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며, 「허생전」 뒤에 명나라 유민의 이야기를 덧붙여 이 작품의 핵심이 허생과 이완대장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북벌론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는 세 가지 계책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내가 응당 재야에 숨어 있는 와룡선생(臥龍先生)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할 수 있게 하겠는가?
- ②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흠뻑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 줄 수 있게 하겠느냐?
- ③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술선해서 복종한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아 변발을 하게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

해서 하늘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sup>30)</sup>

위의 세 가지 계책에 대해 이완대장은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 집권층이 가진 예법이나 명분 때문에 실제로 북벌이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연암은 이렇게 북벌론의 허상을 폭로하며 집권 사대부의 헛된 명분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되놈의 나라’라고 청나라를 무시하던 당시의 명분만을 고수하던 사대부의 인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박지원은 당시 사회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명(明)에 대한 사대주의와 낡은 관습을 타파하려는 선진적 지식인으로서의 허생을 창조했다.<sup>31)</sup> 당시에는 성리학이 쇠퇴하고 실학이 대두되고 있었다. 연암은 실학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열하일기』를 통해 나타내었고, 치열한 당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이러한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액자식 구조를 갖추어 「옥갑야화」 속에 허생을 감춰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연암은 허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을 떼고 있다.

나도 윤영尹映이란 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일찍이 윤영이 말하기를 변승업의 부는 그 재물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래가 있었다고 했다. 나라의 갑부였던 집안이 변승업 때에 이르러서는 조금 쇠퇴한 것이며, 집안이 처음 재산이 불어날 때는 마치 그렇게 되라는 명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와 허생許生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아도 아주 이상한 일이다. 허생은 끝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30) 김혈조, 『열하일기3』, 돌베개, 2010, pp.239~240.

31) 김경화,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p.19.

는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고 했다. 윤영이 말해 준 허생의 이야기는  
이러하다.<sup>32)</sup>

여기서부터 ‘허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바로 그 이야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허생전」인 것이다. 그런데  
제 6화의 변승업의 이야기는 ‘허생 이야기’ 속의 변씨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허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가가 그와 관련 있는 변  
승업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  
은 이광수의 「허생전」 구조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옥갑야  
화」를 참고하여 작품을 지었기 때문에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 중 유일하게 변진사를 앞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연암은 누군가 꺼낸 변승업의 이야기에 기대어 자신의 ‘허생 이야기’  
를 꺼낸 것이다. ‘허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도록 하기 위해  
돈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이끌어내는 형식을 택한 것이다.  
사실 제 7화의 ‘허생 이야기’는 변승업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크게 두 단  
계로 전개되는데, 첫째는 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조그만 시  
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씨의 주선으로 허생과 이완이 만나게  
되고, 허생이 북벌론을 비판하는 장면이 전개된다. 제 1화부터 6화까지  
의 여러 비장들의 이야기는 돈을 의롭게 쓰고, 신의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변씨가 어떠한 시험을 하고자 하는 선비의 요청  
에 신의로써 만금을 빌려주는 내용은 앞서 나온 이야기들과 비슷한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허생의 언행을 통해 그 인물됨과 포부를 알아  
보고 그의 어려운 요구를 들어주는 변승업의 행동은 앞서 나온 비장들  
의 이야기 속 인물들과 같은 형상인 것이다. 즉, 제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과 ‘허생 이야기’ 속의 변승업이라는 인물로 연결되는 「옥갑야화」

---

32) 김철조, 『열하일기3』, 돌베개, 2010, p.227.

의 전체 내용은 돈 있는 자의 지인지감과 신의를 통한 돈의 사용 및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내적인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 6화 뿐 만 아니라 그 이전의 내용들도 ‘허생의 이야기’를 위한 의도적인 장치로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허생의 행동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생전」을 독자적인 작품으로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 「옥갑야화」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통일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1화에서 6화까지의 내용은 돈과 신의를 중심으로 주제나 서술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허생이 이완(李莞)을 통박한 다음날 사라졌다는 내용 다음에 허생이 명(明)나라 유민(遺民)일 거라는 내용의 후지와 연암이 윤영에게서 허생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와 그 윤영을 다시 만난 사연을 기록한 또 하나의 후지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후지가 갖는 역할과 ‘허생 이야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지 I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경상감사 조계원(朝啓遠)이 순행 중 청송(靑松)에서 중 두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감사의 행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조계원을 지목하여 헛소리나 치고 권세에 아부함을 꾸짖고는 따라오라고 한다. 조계원이 따라가다가 힘이 들어 쉬어가기를 청하자 두 승려는 그가 평소 명나라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하더니 겨우 이 정도의 체력으로 요동 벌판을 달리겠느냐고 꾸짖고, 목이 말라 물을 청하자 약초 황정으로 만든 떡과 술잎 가루를 계곡물에 타 주고는 조감사가 먹지 못하자 요동 벌판에서 전쟁을 할 때는 물이 귀하므로 말 오줌을 먹어야 한다며 호통을 치며, 다시 중국에서 오삼계(吳三桂)<sup>33)</sup>가 청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기병하여 여러 지방이

33) 김철조, 『열하일기3』, 돌베개, 2010, p.243. - 오삼계는 청나라 장수로, 역적 이자성을 격파하고, 평서왕에 봉해졌다. 청나라에 저항했으나 뒤에 모반하여 황제라고 칭했다.

들끓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하고는 모른다고 하자 천하의 정세를 모르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것을 한심해 한다. 그리고는 자기들 스승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집권층의 북벌론이 전혀 실천성을 갖지 못함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생이 이완을 꾸짖는 장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장면을 반복한 것은 연암이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허생 이야기’가 허생이 아내의 성화에 집을 나서고, 변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고, 안성과 제주에서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고, 사람이 살만한 섬을 찾고, 군도를 모아 섬에 데려가 부를 축적하고, 돌아와 변씨를 만나 교우하고, 변씨의 소개로 이완을 만나는 것 등의 순서로 서술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서술 분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 7화의 내용이 윤영에게서 들은 것으로 시작하고, 후지Ⅱ의 내용이 그 윤영을 다시 만나서 들은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과 전체적인 틀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지Ⅱ의 내용을 통해 전달되는 허생의 처가 다시 굶주렸을 것이라는 윤영의 말은 허생이 사라지고 난 후의 뒤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허생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적골에 살았을 때처럼 주림을 참고 독서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제 1화부터 6화까지의 이야기에서 의로움을 위해 흔쾌히 거금을 쾌척하는 홍순언이나 자신의 돈을 사회적 공물이라 하며 과감히 흠어버리는 변승업의 모습과 연결된다. 이것은 연암이 추구했던 지식인의 초상이다. 여러 비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돈의 활용이 이룰 수 있는 가치 또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목적이 되는 것, 곧 연암이 추

구했던 이용후생을 말하는 것이다. 곧 연암이 추구했던 이용후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옥갑야화」 속의 ‘허생의 이야기’는 「허생전」 만을 단독으로 놓고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암의 사상이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옥갑야화」라는 틀 속에서 ‘허생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암의 사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생전」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자가 「옥갑야화」를 통해 ‘허생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면, 연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허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학습자의 시야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옥갑야화」와의 관련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고전인 ‘허생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옥갑야화」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Ⅲ.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

Ⅲ장에서는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세 작품을 살펴보고, 「옥갑야화」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또한, 고전을 고전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작품과 연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때문에 이들 세 작품을 가지고 고전 속의 허생을 현대로 되살려 학습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제 교수·학습 방안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 장을 통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1. 이광수의 「허생전」-‘허생 이야기’ 안에 다양한 일화들의 향연

이광수의 「허생전」은 1923년 12월 1일부터 1924년 3월 2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변진사, 안성장, 과일 무역, 과일 흉년, 도적, 허생의 본색, 웬 사람, 그 이튿날, 요놈의 자식, 배를 몰아서다, 장에 난 것은 모조리 사라, 돈과 계집일래, 아버지의 원수, 제주 목사, 삼년 공판, 변산 도적, 새 나라, 옛 나라로, 돌아와서, 이 날’ 등 모두 20개의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변진사>

1) 변진사에 대한 소개, 효종이 북벌에 뜻을 두고 있는 시기. 허생원이 등장하여 변진사로부터 만 냥을 차용하여 안성읍내 유진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함.

<안성장>

2) 허생원과 애꾸눈이 돌쇠가 안성장에 도착하여 유진사에게 과일 장사를 모조리 불러달라고 함.

<과일 무역>

3) 허생은 보름 동안 과일을 사들여 유 진사의 창고에 쌓는다.

<과일 흥년>

4) 허생은 과일을 되팔아 열 곱의 돈(십만 냥)을 벌어들인다.

<도적>

**5) 허생은 주인에게 밥값으로 준 천냥만 남겨두고 도적들에게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라고 하고, 도적 두목에게 돈 백 냥만 자기 집에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허생의 본색>

6) 목적골에 대한 소개와 아내의 성화로 인해 돌이를 데리고 변진사를 찾아감.

<웬 사람?>

**7) 허생의 처가 부녀자 체면을 차리며 밤중에 돈을 전해 받음.**

<그 이튿날>

**8) 허생은 말과 보교를 사양하고 걸어서 강경으로 간다.**

<요놈의 자식>

**9) 허생은 아이들과 실갱이하는 돌이를 타이른다.**

<배를 몰아 사다>

10. 허생은 강경 포구에서 배 스무 척을 산다.

<장에 난 것은 모조리 사라>

11) 허생은 장에 난 것을 모두 사들여 배에 싣는다.

<돈과 계집일래>

**12) 허생은 검둥이의 사연을 듣고 돈 천 냥을 준다.**

**13) 김문흥이 돈을 벌기 위해 그의 아버지의 관(棺)을 퍼가지고 옴. 허생은 그의 사연을 듣고 돈 만 냥을 준다.**

<아버지의 원수>

**14) 김문흥은 만 냥 빚을 갚고 유진사와 어머니의 속죄를 받아낸다.**

<제주 목사>

**15) 허생의 계략으로 탐관오리 제주목사가 떠난다.**

<3년 공관>

**16) 제주는 3년 공관의 태평 시절을 이루고, 허생은 말총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긴 뒤 제주를 떠난다.**

<변산 도적>

**17) 변산 도적 두목 조곰보가 흥총각을 찾아 간다.**

**18) 전국에 도적이 창궐함 - 흥총각은 이완과 의형제를 맺었었다.**

**19) 흥총각의 천거로 조곰보는 허생을 찾는다.**

20) 허생은 수천 명 도적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일생에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거든 여편네와 소 한 짝씩을 사오라고 한다.

21) 허생은 사십여 척 배에 사천 명 넘는 사람을 싣고 남으로 떠난다.

**22) 도적들을 싣고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도적들 일부를**

잃어버리고, 열두 척 배만 육지에 달는다.

<새나라>

23) 허생은 새 나라에 적합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생활을 구려간다.

24) 추수하여 남은 곡식 삼천여 석을 싣고 장기에 도착하여 일본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수출한다.

25) 장기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온 조선 사람 김촌 일가를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는다.

26) 새 나라에 새아기들이 태어난다.

27) 삼년의 세월이 흘러 허생은 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 나라를 떠난다. 돌아오다가 실종됐던 도적들이 사는 섬을 발견함.

28) 허생의 명령으로 상륙한 섬에서 시커먼 사람에게 조공보의 횡포에 관한 사연을 듣는다.

29) 허생이 조공보를 다스리고 남녀들의 짝을 찾아주고 새로 결혼도 시켜 줌. 허생은 돌이에게 새나라를 말기고 떠난다.

<옛나라로>

30) 열한 배에 실은 돈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데려온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을 배와 함께 모두 띄워 보낸다.

31) 변진사에게 칠년 만에 십만 냥을 갚는다.

<돌아와서>

32) 변진사가 허생의 집에 찾아온다.

33) 허생이 홍총각과 도적의 우두머리를 만남

<나라의 부르심>

34) 변진사의 소개로 허생이 이완과 만나 네 가지 방책을 제시한다.

35) 허생은 사라진다.

<이 날>

36) 상감과 이완은 허생의 말대로 일을 진행시킨다.<sup>34)</sup>

이 작품에서의 허생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경제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졌다.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개천을 성안으로 흐르게 하는 점이나, 돈을 주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런 점은 원작이 아내와의 다툼으로 인해 집을 나가는 허생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비해, 이광수 「허생전」의 첫 장이 ‘변진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예나 이제나 돈이 힘”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변진사를 맨 앞에 설정한 것이나

---

34) 이광수, 『이광수전집3』, 삼중당, 1964.

돈에 광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sup>35)</sup>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며 당대 사회의 문제들을 비추고 있다.

변진사를 앞에 내세운 연유는 「옥갑야화」의 구조, 즉 6화의 변승업의 이야기가 나오고 ‘허생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는 변진사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효종 임금의 북벌 계획으로 인해 ‘진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 변진사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는 것만 「옥갑야화」의 구조를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 이야기의 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곧 이광수는 「옥갑야화」의 구조를 참고만 했을 뿐, 이제까지 모두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 있는 ‘허생의 이야기’에만 좀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뒤에서 살펴 볼 채만식의 「허생전」은 연암의 것과 이광수의 작품을 참고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채만식의 작품 역시 「옥갑야화」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사의 전개는 ‘1장 변진사, 6장 허생의 본색, 그리고 11장 장에 난 것은 모조리 사라, 16장 변산 도적, 20장 나라의 부르심, 21장 이날’만 원 텍스트와 동일하고 그 외의 장은 작가가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연암의 ‘허생 이야기’와 비교하여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가된 장면은 5),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2), 25), 26), 28), 29), 33), 36)의 내용이다.

이광수의 작품은 화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사건의 전면에 나타나서 사건을 이끌고 있지 않고, 뒤에 숨

---

35) ‘허, 내니 도적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시오?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돈이 없으니까루 남의 소도 도적하고, 제 계집도 팔아먹고, 제 에비 송장도 팔아 먹지요. 돈 없는 사람이 돈만 생긴다면 무엇이 못해요? 돈만 생긴다면 당신들 죽어간들 못하오? 나는 제 에비 귀한 줄을 몰라서 해골을 파다가 팔아 먹는 줄 아시오? 돈이 없으니까루 그러지요’ 이광수, 『이광수 전집3』, 삼중당, 1964, pp.37~38.

36) 김미영, 「〈허생전〉 패러디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 『비평문학』 24호, 2006, p.52.

어서 보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이 작품은 허생이 들려주는 기행문에 가까운데, 따라서 작품을 읽는 독자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여 있는 동화나 옛날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와는 달리 이광수의 작품에서는 허생이 ‘돌이’와 함께 다닌다. 또 변진사가 만 냥을 안성에 사는 유진사택에 붙여 준다는 설정 또한 다르다. 유진사는 채만식의 작품에 나오는 강선달과 같은 역할을 하나, 나중에 김문흠의 원수로 등장한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또 안성장에서 과일을 모조리 사들여 돈을 벌어들인 허생에게 도적들이 들이닥친다. 박지원의 작품에서는 도둑의 소굴로 찾아가는데 비해, 여기서는 도적들이 돈 냄새를 맡고 알아서 찾아온다. 유진사에게 주기로 한 천 냥을 제외하고 모조리 가져가라는 허생, 그러나 도적들은 기껏해야 백 냥씩 밖에는 쬐어지지 못한다. 허생은 그런 도적 두목에게 자신의 집에 두고 온 아내에게 백 냥을 전해 달라는 청을 한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적 또한 군말 없이 그 청을 들어준다.

이광수의 「허생전」은 시사삼책(時事三策)에서도 다른 점이 두드러지는데, 연암의 원작과는 달리 이광수의 작품 속에서는 시사사책(時事四策)이 제시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첫째는 명문 거족의 총준 자제를 많이 뽑아 청국으로 보내어 청복을 입고 청어를 배우고 사백여 주에 흠어져 명 나라 유신의 자손들과 깊이 사귀게 하여야지요- 이 일을 할 수가 있나요?
- ② 또 한가지는 명문 거족의 딸들을 많이 뽑아 청국으로 보내어 그 나라 명문 거족의 자제들에게 시집을 보내어 인척 관계를 맺어야 하지요- 이 일을 할 수가 있나요?
- ③ 또 한가지는 지금 국고에 있는 돈과 곡식과 모든 재물을 덜어 전국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전국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여야지요- 이 일도 할 수가 있나요?
- ④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에 만들어 놓은 화약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무기를 녹여 농기를 만들고 장안 안에 모았던 군사를 흩어 돌려보내

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요- 이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박지원의 ‘허생의 이야기’속 시사삼책(時事三策)은 이러하다.

- ① 내가 제갈량 같은 이를 추천하겠으니, 당신은 임금께 아뢰어서 그분의 오막살이에 세 차례 찾아가도록 하겠소?
- ② 명(明)나라 장수와 선비들이 조선에는 목은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흠아비들로 떠돌고 있소. 당신이 조정에 청하여 종살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임금의 친척이나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소?
- ③ 무릇 천하에 큰 뜻을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며 손을 잡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겨레들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잖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가까이 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오. 나라 안에 그럴 만한 사나이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가운데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손을 잡는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게서 사람을 찾아도 얻지 못할 때에는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나아가서는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물러나서도 외삼촌 나라의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이오.<sup>37)</sup>

박지원의 작품에서 ‘이완’이 시사삼책(時事三策)을 듣고 모두 이루기 어렵다고 한 것과는 달리 이광수의 ‘이완’은 조금은 망설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답하고 상감 또한 허생이 제시한 모든 일을 이룬다. 이광수의 ①과 ②의 계책은 연암의 것과 비슷하지만, ③,④번 정책은 현실적인 것을 먼저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백성을 먹이고, 입히어 나라

37) 김수업 외, 『한 푼도 못되는 그놈의 양반』, 나라말, 2007, pp.154~156.

를 잘 살게 만들자는 것이며 이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광수의 작품에서 연암의 것과는 달리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마도 희화화된 허생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일 것이다. 이를 태면 허생에게 때를 쓰거나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허생이 도둑을 통해 아내에게 돈을 건네려 할 때 체면을 중시하느라 하인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꾸며 끝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장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허생의 아내를 통해 양반가의 체통을 상실한 여성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허생과 대비시켜 허생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꿈이 아닌가.

하고 한 번 만져 보고, 눈을 한 번 비비고 한 번 만져 보고, 발을 한 번 덩 구르고 또 한 번 만져보고, 병그레 웃으면서 한 번 만져 보고, 아무리 만져 보아도 돈은 분명히 돈입니다. …(중략)… 비록 양반 체면에 소리를 내어서는 못 볼렀더라도 가슴 속으로는 볼렀을 것입니다.<sup>38)</sup>

특히, 허생의 아내가 돈을 보고 좋아하는 위의 장면은 양반가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체통과 위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또 돈 만 냥에 아버지의 관(棺)과 자신의 계집까지 넘기려 했던 ‘김문흠’의 행동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유진사’에게 만 냥을 빚진 ‘문흠’의 아버지는 집과 아내를 모두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한다. 죽기 전 ‘문흠’에게 남긴 유언을 이루기 위해, 돈 만 냥을 갚고 잃었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 ‘문흠’은 아버지의 유골까지 파헤치는 악행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예상과는 달리 ‘김문흠’은 사흘 만에 탄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어머니와 ‘유진사’를 곱게 두고 자신의

---

38) 이광수, 『이광수전집3』, 삼중당, 1964, p.23.

아내와 길을 떠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관까지 파헤쳐 오는 김문흠과 도적의 괴수노릇을 하는 홍충각과 이완의 이야기, 도적들 중에 있었던 조곰보의 횡포 등이 허생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광수의 작품은 원작인 ‘허생 이야기’보다 서술시간이 훨씬 더 방대해졌다.

이광수의 「허생전」을 수업시간에 활용하기에는 서술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과 박지원의 작품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또 「옥갑야화」의 내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즉, 「옥갑야화」를 통해 ‘허생의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할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작품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찾아 읽어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거나 과제로 던져주어 원문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습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V장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박지원의 ‘허생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이광수와 채만식의 「허생전」을 읽게 하여 세 작품을 비교하게 하여 그로인해 학습자가 원작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2. 채만식의 「허생전」 -‘알기 쉽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물 ‘허생’

채만식의 「허생전」은 1946년에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협동문고」 단행본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작중현실의 구체성과 현실성

을 중심으로 지어진 소설이다. 후기를 통해 채만식은 원전 「허생전」과 이광수의 「허생전」, 그리고 설화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참고하여 집필한 것<sup>39)</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채만식의 「허생전」은 「옥갑야화」 속의 들어있는 ‘허생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채만식의 작품 역시 「옥갑야화」의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만 「허생전」의 원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고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 또한 그 잘못을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의식 있는 작가들이 고전을 현대로 되살려내는 작업을 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그 작품의 전체적인 바탕까지도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교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은 아쉬움을 남긴다.

채만식의 「허생전」이 연암, 그리고 이광수의 작품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사건의 설정이나 인물의 성격부여에 있어서 추상적인 측면이 많이 없어지고, 구체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원전의 무인공도를 구체적인 장소인 제주도로 바꿔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허생과 목적골에 대한 소개
- 2) 과거와 담 쌓은 허생과 아내 고씨의 성화
- 3) 변진사에 대한 소개와 허생의 외모
- 4) 변진사에게 만냥을 꾸어 백냥은 목적골로, 구천구백냥은 안성을 강선달집으로 보냄.
- 5) 우직한 먹쇠와 함께 길을 떠남.
- 6) 안성장의 과일을 모조리 사들이는 허생
- 7) 석달만에 열급절을 번 허생이 쌀을 사두자는 강선달의 제의를 물리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라고 충고함.
- 8) 화적떼의 침입과 돈과 사투 벌이는 우스운 풍경

39)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206.

- 9) 요령 없는 두목을 혼내는 허생과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
- 10) 화적들에게 돈을 주어 보내고 새 달 보름까지 충청도 강경장터에서 다시 모이기로 함.
- 11) 허생은 이만냥을 변진사에게 갚고, 나머지 칠만냥을 운서방집으로 보냄.
- 12) 떠나기 전, 매화의 빔을 갚아주고 매화의 간청으로 같이 길을 떠남.
- 13) 강경장터에 도착하자 오십 척의 배와 새 살림들을 장만함.
- 14) 십사장과 백사장을 세워 대열을 정비함.
- 15) 허생과 낙천지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 출발하는 날 첫눈이 내림.
- 16) 제주 목사의 악행과 심복 송삼복에 대한 소개
- 17) 허생과 사람들을 조천에 도착하여 짐을 품.
- 18) 이좌수의 사정을 알게 된 허생이 돕기로 함.
- 19) 사흘 후, 동헌에 일꾼들이 사라지자 찢찢매는 목사와 송삼복
- 20) 허생의 꾀로 인해 빈손으로 제주를 떠나게 된 목사 일행
- 21) 신임목사들이 부임했으나 다들 떠나고, 제주목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게 됨.
- 22) 삼년 후, 석양의 노자만 갖고 먹쇠와 함께 돌아가는 허생, 그리고 매화의 죽음
- 23) 변진사와 허생이 다시 만나 조선의 앞날을 이야기 한다.
- 24) 허생과 이완의 만남
- 25) 이완에게 장기적인 북벌계획을 제시하는 허생
- 26) 이완은 허생의 대책에 감탄하고 조정에 나와 줄 것을 권유하나 허생이 거절
- 27) 사흘 후 변진사와 이완이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았으나 허생은 사라짐.<sup>40)</sup>

채만식의 「허생전」에서 제주도로 떠나기 전 집결지가 강경이었는데, 이는 작가가 강경이 일제시대 때 쌀의 집산지이자, 거대한 항구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산 바닷가에서 만난 도적들을 데리고 떠나는 박지원의 작품보다 사오천 명이 일 년 먹을 곡식을 장만하기에 강경은 훨씬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천 명이 허생 한 사람의 통솔 하에 떠나는 원작보다 십사장, 백사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현실감 있고, 제주도에서 탐관오리를 쫓아

40)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7.

내어 이상국을 세우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박지원의 무인도가 가지던 공간적 의미를 제주도라는 실제 존재하는 땅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현실성까지 다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과 이광수의 작품에서 제주도는 말총으로 돈을 버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낙천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제주도로 가기 전에 강경 장터에서 술한 물건을 사들인 점과 제주 목사의 횡포를 듣고 계락을 꾸며 그를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제주도를 낙천지로 만든다는 설정이 박지원의 작품과는 다르다.

박지원의 원작에는 허생이 하인 없이 홀로 다니는데, 채만식의 「허생전」에서의 허생은 하인이었던 먹쇠를 속량시키고, 길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주종관계가 아닌 ‘손대’로서 그를 데려간다. 아마도 ‘먹쇠’라는 인물의 설정은 이광수의 작품 속 ‘돌이’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하인이었던 먹쇠를 면천시킨 것은 가난 때문이었다. 그러나 먹쇠는 하인으로 있는 동안 허생이 상전으로서 권위를 드러내는 양반이 아니었기에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도 아버지를 만난 듯 반가워한 것이다.

또 연암의 작품에서는 ‘변진사’에게 무작정 돈을 받아가는 설정인데 반해, 채만식의 「허생전」에서는 강선달의 집으로 만 냥을 붙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광수의 작품과 동일하다. 다만, 이광수의 「허생전」에서는 ‘유 진사의 집’으로 보내라고 한 것이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강선달’이라는 인물로 바뀌어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받은 만 냥으로 세계의 작품 모두 안성장에서 열배의 이문을 남기지만, 쌀을 매점하라는 강선달의 권유를 물리치는 장면은 채만식의 작품에서만 나타난다.

만냥에서 백냥은 목적골 허생의 집으로 보내주고, 구천 구백냥은 안성읍 내 강선달집 허생의 앞으로 환을 놓아주시오.41)

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연암의 허생은 만 냥을 빌린 후 바로 조그만 시험을 하러 야속하게 떠나버리지만, 채만식의 허생은 집에서 끓주리고 있을 아내를 위해 백 냥을 보내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채만식의 「허생전」이 이광수의 작품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광수의 「허생전」에서 백 냥을 아내에게 보내는 허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채만식의 작품은 현실적인 측면이 좀 더 부여 되어서 그런지 이광수의 작품에서는 도적 두목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백 냥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비해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변진사에게 돈을 빌릴 때 목적골 자신의 집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의 작품과는 달리 매점매석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그것도 일종의 상행위로 인정하면서, ‘양반들이 입치레로 먹는 과일’과 ‘서민의 식량인 쌀’을 변별할 줄 아는 상도덕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분은 강선달이 허생에게 쌀을 매점매석하라는 권유를 하자 그에 대응하는 허생의 대답에서 잘 나타난다.

악한 돈일랑 모으지 마시요 인자는 불부라는 말이, 세상 사람이 돈을 약하게 밖에는 모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난 말이지요. 약하지 않게 모아 약하지 않게 쓰면야 부자가 나뉘 머리야 없는 것이니깐요.<sup>42)</sup>

즉, 작가는 위의 글을 통해 약하지 않게 돈을 모아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채만식의 작품은 이렇듯 여러모로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북벌의 목적도 박지원의 작품에서는 병자호란의 국치를 씻기 위한 목적이지만,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과거 우리 민족의 땅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완이 삼전도의 원수를 갚는 명목으로 북벌

41)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214.

42)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224.

계획을 내세우자 허생이 그에게 북벌의 명목이 잘못됨을 알려주는 부분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 우리도 어디, 연경에다 도움을 하고, 한바탕 중원을 호령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런 목적으로, 북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대 고작 삼전도의 분풀이 그거란 말씀이요. …… 경륜이 그렇게 까지는 크지 못하다고 하드래도, 요동(遼東) 이나마 도로 찾겠다는 것으로 북벌하는 목적을 삼아야지요. 아시다시피 요동은 고구려 적까지도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삼사백년이 못 가서, 우리 조선은 땅이 모자랄 날이 옵니다. 그러니, 시방부터라도 서둘러서 도로 찾아야 할게 아닙니까. 찾아만 놓으면 삼사백년 후뿐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요긴한 땅이니깐요. 그럴것이지, 그대, 국력을 기울여 성패를 걸고 북벌을 한다면, 겨우 삼전도의 분풀이 하겠다고요. 설마 이대장으로 앉아 전쟁을 장기 한판 두기처럼 대수론 일로 여기시지야 아니하시겠지.<sup>43)</sup>

또한, 채만식의 소설에서는 박지원의 시사삼책(時事三策)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정녕 북벌을 하시려거든, 우선 북벌을 파의하십시오. 조련하든 군사를 혈으십시오. 병장기는 녹혀서 깡이를 만들게 하십시오. 화약은 물에 넣고, 돈과 군량은 가난한 백성을 노나 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십년 동안 전쟁 이파는 입밖에 내지를 말고, 오직 조정에서는 사색봉당의 싸움을 물리치고, 수령백백으로는 백성의 재물을 범치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우리조선이 부강하고, 일변, 백성은 나라를 신뢰하는 나라가 되게 해놓으십시오.

② ……그렇게 이십년을 해서 뜻대로 조선이 부강하고, 백성이 조정을 신뢰하고 하거든, 그때부터 십년 위한하고, 전쟁을 준비를 시작 하십시오 그러나 전쟁할 준비라고 해서, 군사를 조련하고, 병장기를 만들고, 군량마초를 작만하고 그러는것만이 전쟁할 준비가 아닙니다. 영탐을 몇백명이고 청나라로 드러보내서 사백여주의 지리를 세밀히 조사 하고, 군비의 어떠한가를 조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 조정과 중원백성의 사이를 떼어놓고, 그밖에도 할 일이 많습시다마는, 우선 대강은 그렇습니다.

③ 이대장은 돌아가셨어도, 나라와 백성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수명은 불과 칠십이지만, 나라와 백성의 앞날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

43)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268.

리 대에 못하면 우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못다 하면,  
우리 아들의 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sup>44)</sup>

이러한 설정들은 사건 전개를 흥미롭게 만들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실감나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채만식의 세 가지 방책은 연암의 것이라기보다는 이광수의 작품의 세 번째, 네 번째 정책을 가지고 와서 좀 더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의 「허생전」에서는 당장 실현 가능한 일들만 일러주었다면,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지금부터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들, 곧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사삼책(時事三策)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아들과 그의 아들이 해낼 것이라는 암시를 주며 희망적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

채만식의 「허생전」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돋보이며, 특히 여성인물, 당돌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매화’의 등장이 눈길을 끈다. ‘매화’라는 여성 인물의 등장은 연암의 작품에서도, 이광수의 「허생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설정이다. 이러한 여성인물의 설정은 굉장히 참신하다. 매화는 스스로 ‘손대’를 자처하며 허생을 따라나섰고, 후에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허생을 챙겨준다. 그러나 허생이 제주를 떠날 때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설정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매화 역시 허생의 아내와 다르지 않은, 단지 주변 인물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임을 밝혀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매화가 죽은 뒤 작가가 개입하여 ‘허생은 오입장에도 활량도 아니었다. 일만 사람의 민정(民情)은 살필 줄 알아도 한 계집의 은근한 사모의 정은 알 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계집에 들어서면 꼴쟁님이요, 근경속 없는

---

44)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p.269~270.

벽창호였다.’<sup>45)</sup> 라는 해설식의 묘사를 통해 청렴한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허생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매화는 단지 허생의 이러한 성격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장했던 것이며, 고전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광수의 「허생전」은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를 장편소설로 확장하여 패러디했기 때문에 변형되고 삽입된 이야기는 있어도 삭제된 내용은 없다. 그런데 채만식의 「허생전」은 중편소설로 패러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내용이 삭제되었다.<sup>46)</sup>

허생은 글을 아는 자를 데리고 섬을 떠난다.  
허생은 돈을 바다에 버린다.

아마도 작가가 구체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며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위의 두 가지 요소가 현실성도 부족하고, 설득력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채만식의 「허생전」은 이렇게 부분 부분마다 작가가 개입하여 허생의 성격을 확실히 해주고 있으며 알기 쉽게 역사적인 사실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당대 시대 상황과 현실을 작품과 쉽게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교재로서 작용하리란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을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딱딱한 역사적 지식을 교수하기 보다는 이러한 작품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작품 속 역사적 사회 상황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도 좋은 수업 방안이 될 것이라 짐작된다. 허나 「옥갑야화」의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틀 속에서 ‘허생의 이야

---

45)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261.

46) 김경민, 「〈허생전〉의 패러디 소설 연구: 이광수와 채만식의 〈허생전〉 중심으로」, 세종대 교육대학원, 2007, p.32.

기'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서는 부족하지만, 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당시의 상황이나 역사적인 지식측면을 참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뒤에 나올 실제 교수·학습 방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

### 3. 이남희의 「허생의 처」 -같은 구조 속 다른 이야기, '허생' 뒤집어 보기

1987년 발표된 「허생의 처」는 원전에서 주변인으로 존재했던 허생의 아내를 전면에 내세워 허생을 비판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 창작배경의 후일담 형식으로 제기된 '허생 후지'를 도입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윤영이라는 노인으로부터 허생 이야기를 듣고 「허생전」을 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남희의 「허생의 처」는 앞서 살펴본 이광수와 채만식의 작품과는 달리 「옥갑야화」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옥갑야화」와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내부 이야기, 곧 '허생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

이 작품은 「옥갑야화」와 마찬가지로 액자식 구성으로 짜여 있는데, 바깥 액자 이야기는 작가가 20살 때부터 17년 동안 윤영 노인을 두 번 만나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거짓스럽고, 괴상하고 혼황하기 짝이 없어서' 들음직 했다며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만남에서 허생 이야기 중 모순된 점을 질문하자 직접 겪은 일이나 다름없이 생생하게 설명했으며, 18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늙지 않은 노인을 윤영이라 부르자 그는 화를 내며 자신의 이름이辛薑이라 하기에 작가는 그가 도술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하며 회상을 마친다. 여기서 작가의 창

작 동기를 예고하면서, 원 텍스트인 ‘허생의 이야기’는 내부 액자 이야기 속 허생의 처를 통해 드러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 운영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운영은 허생의 처가 가엾다고 한다.

- 1)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을 반복하여 꾸다.
- 2) 병자호란 때 어머니는 자결했고, 서모는 살아남았다.
- 3) 중인에게 시집간 서모 소생 동생에게 돈을 꾸러 간다.
- 4) 청나라에서 서모를 찾아오기 위해 아버지는 장사를 시작했다.
- 5) 동생에게 남편이 변부자에게 만금을 빌어 십만 금으로 갚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6) 돌아온 남편은 늘 그렇듯이 나의 말을 일축해 버리곤 했다.
- 7) 시할머니에게서 남편을 또 나가게 한다고 꾸지람을 듣는다.
- 8) 사촌 시아주버니가 이완 대감을 피하려는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이야기한다.
- 9) 같은 일을 같이 해나가는 농사꾼 부부를 부러워한다.
- 10) 굶주림에 지친 단 한 번의 성화에 남편은 집을 나갔다.
- 11)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 독백한다.
- 12) 남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sup>47)</sup>

「허생의 처」는 「옥갑야화」중 ‘허생 이야기’의 후일담인 ‘許生後識Ⅱ’에 실려 있는 내용을 거의 차용했는데, “안됐어, 허생 처 말이야. 필경 다시 굶게 될 거야.”를 “허생의 아내 말씀이오, 참 가엾더군. 그러고도 그 여잔 여전히 굶주렸던 거요.”로 바꾸었다. 또한, 「허생의 처」는 연암의 ‘허생 이야기’와 시·공간적 배경은 동일하나 마치 「옥갑야화」의 후속편처럼 허생 처의 일대기이면서 그녀의 시점에서 본 허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는 집 나갔던 허생이 무인공도에서 5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허생 처의 회상을 통해 그녀가 시집오기 전과 남편이 집을 비운 5년의 시간

47) 이남희,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R&D Book, 2002, pp.1~30.

이 덧붙여 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허생의 처는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원작과는 달리 5년 동안 사회활동을 벌인 허생의 활약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다만, 원 텍스트인 ‘허생 이야기’의 허생의 인물형상과 같은 올곧은 선비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점은 허생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잘 드러난다.

“이 집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아주 안 돌아오실 겁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 장담하기가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오? 우리는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릴 수 있단 말이오. 사람에게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대로 신의니 뭐니 잘도 갖다 대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을 여자 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차라리 전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sup>48)</sup>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허생의 아내, 넷째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녀의 여동생, 서모, 허생의 처에게 일점의 혈육도 생산하지 못함을 나무라며 허생이 집을 나가는 것을 ‘네 팔자가 남편을 밀어내는 모양’이라고 꾸짖는 시할머니, 그리고 고인이 된 친정어머니가 있다. 이러한 인물은 모두 허생의 처와 함께 자신들의 진정한 삶을 잇고 지내는 인물이다. 이를테면 이들은 모두 작품 속 주변적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허생의 아내에게 병자호란 때 경험한 어머니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고, 그녀의 내부에서 계속되는 의문의 꼬리는 허생의 아내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한다. 전란 때 오랑캐에게 수모를

---

48) 이남희,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R&D Book, 2002, p.28.

당하기 전 주춧돌에 스스로 머리를 쬐어 자결함으로써 양반집 부녀자로서의 도리를 지킨 친정어머니와는 달리 치욕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돌보는 서모는 오히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녀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어머니의 죽음에는 아버지의 강요도 연관되어 있어 계속해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남편인 허생이 5년 동안 10만금을 벌어서 ‘변부자’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그녀는 큰 배신감과 모욕감을 맛보게 된다. 허생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자신이 남편의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이야기를 남의 입을 통해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있어 매우 불쾌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등장은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허생 또한 ‘아녀자의 덕은 기다림’이라며 아내에게 수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허생의 처」는 건들이면 당장이라도 깨져버릴 것만 같은 안타까운 여성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난 뒤에 허생의 아내가 허생에게 절연을 요구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시대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아래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여성들로 하여금 약간의 희열도 맛보게 한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허생의 처라는 여성의 관점에서 「허생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면서도 새롭다. 곧, 변부자에게 돈을 빌려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여전히 아내를 굶주리게 하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로 허생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허생의 처」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도우미가 되어 줄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형태로도 작품을 바라보고 재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허생의 처」가 지닌 이러한 특징들은 학습자에게 꽤러디 소설에 대

한 쉬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서 소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교사의 재량을 발휘해 충분히 활용한다면 「허생전」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박지원의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시하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활용해야지만, 올바른 자료로서의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의 작품과 채만식의 「허생전」은 「옥갑야화」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독 작품으로서의 「허생전」을 계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남희의 작품은 「옥갑야화」가 가지고 있는 액자식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때문에 「옥갑야화」속의 ‘허생 이야기’를 가르치고 나서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소개한다면, 분명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동일한 구조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좀 더 쉬울 것으로 예상되며, ‘허생의 처’라는 전혀 다른 시선을 통해 들여다보는 ‘허생 이야기’를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면서 작품을 이해하고 확장하는데 다른 어떤 작품 보다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V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IV. 7차 교과서 속 「허생전」의 수록 현황과 문제점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은 이남희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옥갑야화」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옥갑야화」를 가르치기 위해 학습자가 좀 더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현대물을 완전히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전을 현대로 새롭게 재창조하는데 있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타하기 전에 먼저 바로잡아야 할 길이라 생각된다.

IV장에서는 「허생전」이 실려 있는 교과서를 살펴보고, 기존의 지도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과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크게 의의를 두기 보다는, 특히 「허생전」의 원 소재지인 「옥갑야화」에 대해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보충설명이라도 해주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허생전」은 18종 문학 교과서 중 4종에 실려 있으며, 『국어(하)』 교과서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본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학 교과서는 교학사(구) 단 1종뿐이며, 나머지 디딤돌(상), 금성(상), 대한(상) 교과서에는 학습활동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단원명	본문 내용	쪽 수
디딤돌(	I. 문학의 본질	★심화학습	p32~33

상)	1. 문학의 특성 (3) 문학의 구조 01. 심청가	「허생전」의 처음 내용부터 변씨가 허생에게 만남을 빌려준 뒤 그에 대해 말하는 부분. (변씨의 성격을 서술하는 문제)	
금성(상)	IV.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소설의 내용과 주제 (1) 광문자전	★목표학습 →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빌려 나간 뒤, 변씨가 의아해하는 자제와 손들에게 허생을 대해 설명하는 부분 (「광문자전」의 주인공간의 역할과 변씨의 역할을 비교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됨)	p234~235
대한(상)	II. 문학의 수용 3.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7) 허생전(許生傳, 오영진)	★수용과 내면화 →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빌리는 부분 (오영진의 「허생전」처럼 위의 장면을 희곡의 특성에 맞게 고치는 문제를 다)	p158~159

본 연구에서는 「허생전」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국어(하)』 교과서와 본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학(상)』 교과서 교학사(구)를 중심으로 「옥갑야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고등 『국어(하)』

### 1) 단원설정의 문제와 소단원과의 연관성

단원명	학습목표	본문 내용(쪽 수)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	「허생전」 전문

(2) 허생전	을 이해한다. ◎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p74~91
---------	--	---------

「허생전」은 ‘정보의 조직과 활용’이라는 단원의 하위 제재로써 신문이나 TV, 인터넷 읽기를 다룬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왜 이 단원에다 굳이 「허생전」을 끼워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좋은 형태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하여 흥미를 돋우고, 매체언어의 특성을 학습하게 한 후에 「허생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쇄매체 언어와의 비교를 이끌어 낸다는 점이 무척 신선하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은 사실은 안타깝다.

단원의 도입부를 살펴보면, “허생전(許生傳)에서는 언어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재조직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해본다.”<sup>49)</sup>라고 밝히고 있어 「허생전」과 관련된 당시 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정보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작품의 이해를 이끌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부분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잘된 구성으로 보인다. 「허생전」은 당대의 현실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과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올바른 이해를 가져

4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2002, p.56.

을 수 없으며 역사적인 지식이 없고, 당대의 사회 현실을 알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한 선비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감상되어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학습활동의 적합성

7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본문과 함께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학습정보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활동을 혼자하기와 함께하기로 구분하여 과제 수행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혼자하기	1. 허생에 대한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양반 계층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자.
	함께하기	2. 허생의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경제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위의 두 항목은 모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것은 앞 쪽의 ‘알아두기50)’와 연관되어 있는데, 차라리 알아두기를 학습활동 바로 위에 실어 학생들이 연관 짓기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혼자하기 1번 문항의 물음은 ‘작품 속에 반영된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알아두기’의 관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허생과 아내의 대화를 중심으로 허생으로 대표되는 당대 양반 계층의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한**

50)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 읽기→문학작품을 포함한 모든 글은 그 안에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작품 속에 반영된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2002, p.75.

다.”라는 교수·학습 방안과 함께 예시답안으로 “정신적 풍요로움만을 지나치게 내세워 생활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조건을 경시한다./ 경제적으로 철저히 무능하여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기생한다./ 독서 이외에 다른 생산적인 산업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능력이 없다.”<sup>51)</sup>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습활동의 의도는 당대의 양반 계층에 문제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는 달리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이해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교사용 지도서처럼 당대 양반 계층의 문제점을 대표하는 인물로 허생을 인정한다면, 무능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허생이, 오히려 비범한 능력을 보이며 사대부 계층을 비판하는 현상이 벌어져 작품이해의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위의 학습활동 1번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완대장에게 허생이 제시하는 시사삼책(時事三策) 부분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허생과 변산 군도의 괴수들과의 만남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 부분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야기되는 혼란을 덜어주어 위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학습활동	혼자하기	1.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동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창작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말해 보자. (2)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함께하기	2. 허생과 변씨의 대화를 역할 놀이로 재구성하여 듣고, 글을 읽을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토론해 보자.

위의 학습활동 혼자하기 1은 앞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알아두기<sup>52)</sup>’에

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p.126.

52)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중략)…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

학습활동	혼자하기	1. 허생과 이완 대장 사이의 대화에 주목하여, 허생이 제기한 세 가지 정책을 이완 대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혼자하기	2.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요구한 세 가지 정책을 정리하여 상소문 형식의 글을 쓰려고 한다. 이런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보자.
	함께하기	3.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년 전의 상황을 풍자한 이 작품이, 박지원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이야기해 보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문학작품에 대한 당대적 이해와 현대적 이해를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 허나 함께하기의 허생과 변씨의 역할 놀이는 자칫 잘못하면 주어진 수업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의 조직과 재활용이라는 대단원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뒤에 제시할 채만식의 「허생전」 같은 작품의 시대적 상황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예문으로 주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당대 사회가 지닌 문제점들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비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좀 더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혼자하기 2번의 활동은 허생이 말한 세 가지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의 조직과 활용이라는 단원의 목표와 합당한 것인지, 현대 학습자에게 굳이 상소문을 쓰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함께하기 3번 활동은 「허

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2002, p.86.

생전」이 배경으로 하는 17세기 조선의 사회적 현실과 작가인 연암 박지원이 살았던 18세기 조선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시대의 연관성과 작가가 나타내고자하는 당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역사적 현실이나 작가의 사상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보충은 교과서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주어진 교재에서는 박지원과 실학사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정보의 제공은 교사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7차 국어(하) 교과서 속의 「허생전」 본문은 작은 삽화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루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은 잘된 부분이라 하겠다. 또 전체적인 내용도 학습 목표와 일치하여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정작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연암에 대한 정보나 당대 사회 현실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또 「허생전」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옥갑야화」에 대한 정보 또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교사용 지도서의 보충 자료에는 『열하일기』 일부분이 발췌되어 있지만, 이는 교과서의 실려 있는 「허생전」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차라리 『열하일기』는 간략히 설명만 하고, 「허생전」이 『열하일기』 속의 「옥갑야화」에 속해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면, 참고 자료로서 좀 더 가치를 지닐 수 있었을 것이라 진단했다.

## 2. 교학사(구인환 외 5인) 『문학(상)』

### 1) 단원 설정의 문제와 제재 선정

단원명	학습목표	소단원 활동의 주안점	본문 내용(쪽 수)
II.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 활동2. 작품의 내용과 형식, 표현 요소를 바꾸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	◎ 문학 작품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 보자. (2)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표현 요소를 바꾸어서 재창조하는 활동을 해 보자. (3)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해 보자.	허생이 모은 돈으로 변산(邊山)에 군도들을 도와주고 섬에서 글 아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 ★p234~240 ★이우성 옮김

『국어(하)』 교과서와는 달리 교학사(구) 『문학(상)』 교과서에서는 이우성이 옮긴 「허생전」임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옥갑야화」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정보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의 「허생전」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대단원 아래 문학 작품 재구성이라는 소단원 활동 2번에 실려 있다. 단순히 「허생전」만 놓고 본다면, 문학작품의 재구성이 긴밀하게 보여 지지 않지만, 본문에서는 원전을 짚막하게 제시하고, 채만식의 「허생전」의 같은 부분을 수록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주어진 학습목표와의 결합이 타당하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대단원 학습목표의 ‘문학 작품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에 해당하며, 채만식의 「허생전」은 학생들이 위의 과정을 쉽게 이루게



끄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이 문제는 두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연관 지어 풀도록 되어있다. 두 작품의 차이에 있어 썩여진 시대상황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여기서 주어질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2차시에 짧은 수업 시간 동안 박지원의 「허생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채만식의 「허생전」과의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채만식의 「허생전」은 원작보다 내용이 길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교사가 줄거리만을 제시하는 것은 위의 학습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두 작품의 비교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할 수 있는 정교한 작업이며, 또 정해진 수업시간으로 인해 교사가 주요 특징만을 추출해 준다면 이번 학습이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채만식의 작품을 길게 다루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지문 탓에 전략, 후략으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이것 또한 교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리·확장에서서는 비슷한 두 ‘시’의 형식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난 후, 발표 및 토론에서 박지원의 작품과 연관 지어 이 단원의 가장 주요 목적인 재창조하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위의 원리·확장에서 제시한 생소한 ‘시’보다는, 「허생전」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제시를 통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부드러운 수업 흐름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이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작품이 어떻게 보여 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본문과의 연관성이 없는 이런 종류의 시 작품보다는 「허생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현대의 소설작품들을 소개하고, 학습자들에게 그러한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런 작품에 관심을 유도하여 찾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학사(구) 『문학(상)』 교과서에서만 이우성이 옮긴 번역 문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누가 해놓은 번역이냐에 따라 첨삭된 부분이 다르고, 같은 부분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번역해 놓기도 한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밝혀놓아야 할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허생전」의 수업은 다른 패러디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니면 작품의 시대적·상황적 배경을 통한 이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정작 중요한 「허생전」의 원 소재지를 밝혀놓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보다는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적으로 수용 또는 변용된 작품과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원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감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교과서들이 여기까지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허생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허생전」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

야 할 것은 「허생전」을 단독 작품으로서가 아닌, 「옥갑야화」 속의 ‘허생의 이야기’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작품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도 그렇고, 현재의 교과서 또한 「옥갑야화」의 구조를 따르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다. 따라서 마지막 V장에서는 「허생전」이 교육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고전 속의 ‘허생’을 현대로 연결하여 좀 더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다.

## V. 「옥갑야화」를 포함한 「허생전」의 교수·학습방안

이 장에서는 위의 현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실제 「허생전」의 지도 방안을 설계할 것이며, III장에서 다뤘던 「허생전」의 현대적 계승 작품들을 적절히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 허나 기존의 수업 모형들을 사용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틀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맞추기는 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뿌리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는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만 차용하도록 한다.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과 같이, 「허생전」을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작품을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야만 학습자들의 자연스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기존의 교과서가 주입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배경지식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생 이야기’의 원주소인 「옥갑야화」를 통해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며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여 그에 맞는 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원작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연암의 작품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보다 흥미로운 수업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먼저, ‘1. 학습 지도 계획’ 단계에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 그 후에 실제 「허생전」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 1. 학습 지도 계획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교과서대로 지도 방안을 세우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 허나 현재 참고할 만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고등학교 교과서가 나와 있지 않은 시점이라 참고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문이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기존의 『국어(하)』 교과서를 기초로 삼아 실제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본 연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고자 한다.

### 1) 『국어(하)』 교과서의 교수·학습 계획 (총 8차시)

차시	학습할 부분	주요 내용 및 활동	
1	· 단원의 길잡이 · 준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개관</li> <li>· 만화를 통해 삶의 모습 추리하기</li> <li>· 만화를 그린 사람의 의도 파악하기</li> </ul>	
2~3	(1)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 언어의 특성</li> <li>· 매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 재구성하기와 활용하기</li> <li>·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기</li> </ul>
4~6	(2) 허생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적·문화적 상황</li> <li>·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재조직하여 감상하기</li> <li>·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하기</li> </ul>
7	· 단원의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 정리하기</li> <li>· 학습 성과 정리하기</li> </ul>	
8	·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 언어의 특성 재확인하기</li> <li>·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의 특징을 고려한 매체 읽기</li> </ul>	
	·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 재구성하기</li> </ul>	

		·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 감상하기
--	--	-----------------------------------

「허생전」은 정보의 조직과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4~6차시가 부여되었다. 총3차시 동안 정보의 조직과 활용이라는 단원아래 「허생전」의 전문만 가지고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해 「허생전」의 지문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적·문화적 상황과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재조직하여 감상하기,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하기’ 등의 활동까지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보 전달식의 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가 지문으로 주어졌다면 어떠했을까. 「옥갑야화」속에서 ‘허생의 이야기’를 학습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옥갑야화」의 흐름 속에서 배경지식적인 측면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허생전」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이며,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기, 경제적으로는 부의 축적과 집중화 현상의 가속화, 사회적으로는 경제력 향상에 의한 신분 제도의 동요와 사회 변동,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실생활에 관심을 둔 실학사상이 만개한 시기이다.<sup>53)</sup> 당시의 역관과 중국 무역에 관한 서두부와 허생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옥갑야화」의 구조 속에서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즉, 「옥갑야화」는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안의 이야기들은 서로 유기

53) 김경화,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p.33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허생전」을 「옥갑야화」의 통일적인 형태로 이해하게 된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없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옥갑야화」 도입부를 포함한 7개의 이야기와 후지가 일정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특한 액자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옥갑야화」의 특징을 통해 기존의 「허생전」과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학습자가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 어떠한 사상과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안에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허생전」을 단독 작품으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옥갑야화」의 틀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허생전」을 가르치는데 있어 기존의 수업방식은 내용해석의 차원에서 지루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감 또한 컸다. 문학의 감상이라는 측면에서 「허생전」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업방식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제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이를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허생전」과 관련된 심화활동이나 수행평가로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을 읽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학습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실제 수업모형을 통해 실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좀 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국어과 수업 모형 중 두 가

지를 가져와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틀만 참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본시 교수·학습 방안을 위한 수업 모형

### 가. 독자 반응 이론

독자 반응 이론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하는 이론이다. 독자 반응 이론은 독자 반응 비평 이론을 토대로 등장하여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비평 이론으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감상 이론’ 또는 ‘교수 이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자 반응 이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작가나 텍스트보다는 독자의 반응을 중요시한다. 독자 반응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Rosenblatt이 있다. Rosenblatt에 따르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곧 텍스트와 독자가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문학 감상에서 텍스트 측면을 강조하느냐, 독자 측면을 강조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Rosenblatt은 텍스트와 독자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텍스트 자체를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의 반응을 무한대로 허용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반응은 존중하되, 수업(해석)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독자와 텍스트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 반응 이론은 문학을 감상하는 주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나 텍스트 자체보다는 독자 쪽으로 무게 중심

이 옮겨졌다. 독자마다 텍스트의 해석은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는 단일하지 않다. 한편으로 텍스트의 의미는 개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된다. 즉 독자 반응 이론은 텍스트 해석에서 개별 독자의 입장과 반응을 강조한다.

독자 반응 이론은 독자들의 반응이 개인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독자들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자 반응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Benton과 Fox(1990)은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요소를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 1) 예상/회상 -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이 현재의 상황을 가져왔나? 책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
- 2) 묘사 - 인물의 얼굴 모습이나 책 속에 묘사된 장면과 같은 독자의 눈에 떠오르는 이미지
- 3) 상호작용 -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 혹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의견
- 4) 평가 - 작가의 기능에 대한 논평

독자 반응 접근법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주요 관심사가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텍스트로부터 한 가지 옳은 해석보다는 다양한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복수의 해석이란 최상의 해석을 향한 경쟁이 없고 올바른 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위협이나 강요가 없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줄 수 있다.

## 나. 반응 중심 접근법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에 독자 반응 이론에 대한 학습법으로 반응 중심 접근법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반응 중심 학습은 독자 반응 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법이다.<sup>54)</sup> 독자 반응 이론이란 문학 현상의 중요 요소인 독자-텍스트-작가 중 그동안 소외되어 오던 독자를 문학 현상의 중심에 위치시켜 놓은 이론을 말한다. 이는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 이는 작가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창작했을지라도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문학 작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문학 교육에서는 독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각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미적 체험을 좀 더 소중히 다룰 수 있는 문학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응 중심 학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55)</sup>

과정	주요활동
반응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학습문제 확인</li> <li>• 학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확인</li> <li>• 배경지식의 활성화</li> </ul>
반응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읽기</li> <li>•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li> </ul>
반응 명료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공유 및 상호작용</li> <li>• 자신의 반응 정교화 및 재정리</li> </ul>

54) 최미숙 외, 앞의 책, p.99

반응 심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li> <li>· 일반화 하기</li> </ul>
---------	---

반응 준비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거나, 삽화나 그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반응 형성하기 단계는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가 최초의 반응을 형성하고, 작품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응 일지 등에 간단히 정리해 보는 단계이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각자 정리한 반응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거나 확장하는 단계이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는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 세계나 자신의 삶에 투영해 봄으로써 반응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나 토론 활동을 통하여 반응을 심화하는 방법도 좋다.

반응 중심 접근법은 텍스트 해석 또는 감상에서 전적으로 독자 입장에서 지 않고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에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서 이 관점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에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었다.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첫째, 독자(학습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한다.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읽고 나타난 반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답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정답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응은 주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

---

55) 최미숙 외, 앞의 책, pp.99-100

이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독자가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작품 자체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나름대로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수업 공동체(해석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독자 나름의 의미 구성은 강조하되 일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독자는 기본적으로 수업 공동체 내에서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수업 공동체는 학급 소집단 구성원이나 학급 구성원 전체가 될 수 있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중시하는 모형이다.<sup>56)</sup> 이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모형은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옥갑야화」를 포함한 「허생전」의 실제 교수·학습 방안

### 1) 1차시

1차시에는 7개의 모둠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먼저 전 시간에 미리 「옥갑야화」의 원문을 자료로 주고, 각 모둠별로 「옥갑야화」의 구조를 나누어 오게 하고, 각 조마다 ‘허생 이야기’를 제외한 제 6화까지의 삽화와 후지를 포함해서 각 각 한 개의 삽화를 설정해 주고,

---

56)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 2009, p.98

내용 분석과 함께 ‘허생 이야기’와의 긴밀성을 찾도록 하는 활동을 과제로 수행해 오도록 한다. 이는 「옥갑야화」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둠 학습지를 나누어 주어 틀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고의 1차시 수업을 통해 ‘허생 이야기’가 「옥갑야화」 속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또 단독 작품으로서의 「허생전」을 배우는 것보다 「옥갑야화」를 통해 ‘허생 이야기’를 학습하는 것이 기존의 고전교육 보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좀 더 쉬우면서도 학습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사 위주의 전달식 수업을 통해서만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둠을 편성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읽고 분석하면서 터득해 나가도록 모둠식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교재는 2010년에 출간된 김철조의 『열하일기』 3권에 실려 있는 「옥갑야화」 부분을 자료로 나누어 준다. 매 차시마다 교사가 원문을 나누어 주어 학습자들이 읽어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가. 수업 전개 계획

학년: 고1-2	교과: 국어	대단원명: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소단원명: (2)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	차시: 1/3	교과서: 김철조의 『열하일기』 3권
학습 목표	1. 문학 작품을 읽고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여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2. 고전문학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수업 방법	모둠활동을 통한 반응 중심 학습법			

수업 단계	학습 내용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반응 준비하기	과제확인 동기유발 목표확인	개별학습 및 전체학습	<p>▣지난시간에 부여한 과제를 모두 준비한다. (전시 학습 환기)</p> <p>·「옥감야화」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질문한다. (1~2명 발표)</p> <p>▣학습목표 안내</p>	<p>·수업 준비</p> <p>·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p> <p>·학습목표를 듣고 인지한다.</p>	5분	<p>&lt;자료&gt; 반응 학습지, 「옥감야화」 전문 -전시에 「옥감야화」를 미리 읽어 오게 하고, 과제도 미리 부여한다.</p>
반응 형성하기	학습순서 알아보기  「옥감야화」 본문학습  글의 내용 파악하기	모동별 학습 및 전체학습	<p>▣학습 순서 알아보기</p> <p>·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간략하게 한다.</p> <p>▣「옥감야화」 소개하기-본문학습</p> <p>·「옥감야화」가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려준다.</p> <p>①지난 시간에 과제로 준 반응지를 꺼내 서두와 7화, 후지 부분이 나누어지는 첫 문장을 학생들이 낭독할 수 있게 한다.</p>	<p>① 지난 시간에 과제로 수행한 구조나누기를 모둠에서 토의하여 정리한다.</p> <p>②각자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확인하기</p> <p>③다른 모둠에서는 어떤 반응과 생각들이 나왔는지 발표를 들으며 파악하기</p> <p>·학습지의 내용</p>	30분	<p>※ 학습순서는 교사가 제시한다.</p> <p>※작품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p> <p>※ 2~3모둠 정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p>

			<p>■글의 구조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p>	<p>을 통해 연암의 사상과 시대상황을 이해하고, 「옥갑야화」 속에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p>		<p>있도록 유도한다.</p>
반응 명료화하기	반응 공유하기	개별학습 및 전체학습	<p>■생각과 느낌 발표하기</p> <p>·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3-4명) -약 6분</p>	<p>·「옥갑야화」를 통해 ‘허생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여 본다.</p>	10분	<p>※이 때 교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 학습자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p>
반응 심화하기	정리하기 차시예고	전체학습	<p>■다음차시 예고</p> <p>·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읽고,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고, 「옥갑야화」와 비교·분석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p> <p>■ 반응 학습지를 제출하도록 한다.</p>	<p>·과제를 확인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한다.</p>	5분	<p>&lt; 자료 &gt; 「허생의 처」 원문 나눠주기</p>

## 나. 학습지

반응학습지의 개별학습의 2번 항목은 변씨의 성격과 허생의 비범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번 군도들이 도적이 된 까닭은 가난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4번 항목은 당대 사대부들의 대한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연암이 제기하고자 한 당대 사회의 문제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했다. 처음에 제시된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은 뒤에 있을 2차시 수업에도 필요한 부분이며, 학습자가 「옥갑야화」의 구조를 직접 분석하여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넣은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연암의 사상과 의도, 그리고 시대적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학습지를 제작하였다.

실시일	년	월	일	요일	반	조	이름
읽으면서 (개별 학습 및 모둠학습 )	<p>※ 「옥갑야화」의 서두 부분과 제 1화부터 7화, 후지 부분을 나누어 보고 처음 시작되는 문장을 짧게 쓰세요. 그리고 「옥갑야화」속의 삽화들이 지니는 공통된 주제를 찾아 적어 보세요.</p> <p>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세요.</p> <p>1. 「옥갑야화」속의 허생 이야기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은?</p> <p>2. 변씨는 알지도 못하는 허생에게 만금을 빌려주었다. 당시의 만 금은 만 냥인데, 1냥은 현재 물가로 대략 5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만금은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러한 지인지감을 지닌 변씨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암은 변승업을 두 번이나 등장시키는데 「옥갑야화」의 몇 화에 등장하는지 찾아보고,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세요.</p> <p>3. 군도들이 도적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p> <p>4. 허생이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이라며 섬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p>						

	<p>※연암은 이용후생의 실천을 통해 임병양란 이후의 조선의 궁핍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당대의 양반관료 계층에게 그 이용후생의 정책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글을 통해 연암이 전하고자 했던 바를 「옥갑야화」 속에서 찾아 적어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중국에서는 재화가 풍성하고 어느 한 지방에 몰려 있지 않고 쓸 새 없이 흘러 이곳저곳 유통됨은 모두가 수레를 사용하는 이로 움 탓이다. 지금 비근한 효과를 가지고 논해 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도중에 당하는 온갖 병폐를 없애 버리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연경까지 달는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 『열하일기』 「일신수필」</p> <p>- 연암은 이 수레 제도를 보며 “사방 수천리 밖에 되지 않는 조선에서 백성의 살림 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고 “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p>
<p>수업 중 에 (모 뎀 학 습)</p>	<p>※작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수행한 위의 과제를 보며, 각 모둠원과 토의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세요.</p> <p>※아래의 글은 연암이 추구하던 실학사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옥갑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담겨있는 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쓰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利用)이 있은 후에야 후생(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후에야 정덕(正德)이 될 것이다. 대체 이용이 되지 않고서 후생할 수 있는 이는 드물지니, 생활이 이미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으리요. 『열하일기』 「도강록」</p>

친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기	※모둠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둠이 정리한 내용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적어 보세요.
수업을 마치며	※수업을 하면서 <허생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2) 2차시

1차시에서 「옥갑야화」를 다루고, 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면, 2차시에서는 「옥갑야화」의 후지를 가져와 비슷한 전개를 이루고 있는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전 시간에 배웠던 「옥갑야화」의 구조를 견고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전의 내용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허생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작업을 통해 좀 더 원전을 깊이 있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 가. 수업 전개 계획

학년: 고1-2	교과: 국어	대단원명: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소단원명: (2)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	차시: 2/3	교과서: 이남희의 「허생의 처」
학습 목표	1. 고전 문학을 읽고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한다. 2. ‘허생의 이야기’를 계승한 현대소설작품을 보고, 내용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방법		모둠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토론식 수업				
수업 단계	학습 내용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반응 준비하기	과제확인 동기유발 목표확인	개별학습 및 전체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에 부여한 과제물을 준비하게 한다.</li> <li>▣ 학습목표를 상기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준비</li> <li>·학습 목표 인지</li> </ul>	5분	「허생의 처」 원문 자료 꺼내기
반응 형성하기	학습순서 알아보기  「옥갑야화」 본문 학습 글의 내용 파악 하기	모둠별 학습 및 전체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순서 안내하기</li> <li>▣ 연암의 작품과 「허생의 처」의 내용 비교·분석하기</li> <li>·작품을 읽고 난 후 감상이나 느낌을 1~2명 정도에게 물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순서를 확인한다.</li> <li>· 자유롭게 대답한다.</li> </ul>	10분	
반응 명료화하기	반응 공유하기	개별학습 및 전체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갑야화」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게 한다.</li> <li>▣ 이남희의 작품을 분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두 작품을 비교하며 토의한다.(약 10분)</li> <li>- 내용이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비슷한지 파악하도록 한다.</li> <li>· 위에서 비교한 내용을 2~3조 정도 발표하고 ‘허생의 처’의 입장에서 본 ‘허생’은 어떤지 느낀 대로 이야기한다.</li> </ul>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의 발표를 듣고 상호 작용하도록 돕는다.</li> <li>-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판서하고, 필요할 때 마다 피드백</li> </ul>

						해준다.
반 응 심 화 하 기	정리하기 차시예고	전체학습	<p>▣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채만식의 「허생전」을 읽어오도록 한다.</p>	· 과제를 확인하고 다음시간을 준비한다.	10분	<p>※ 작품 읽기 활동은 모듈별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p> <p>&lt; 자료 &gt; 학습지 배포, 채만식의 「허생전」 원문 나눠주기</p>

## 나. 학습지

아래의 학습지는 작품을 읽으면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모듈로 수행하도록 전 시간에 미리 과제로 부여한다. 이는 한정된 수업 시간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함이며, 수업 중에는 모듈별 토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허생의 처」는 인물의 설정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허생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활동은 작품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해결하는 두 작품의 비교·분석을 통해 좀 더 원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실시일	년	월	일	요일	반	조	이름
작품을	※ 「허생의 처」의 구조를 나눠보고, 「옥감야화」와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읽으면서  
(개별학습  
및  
모둠학습)

※이남희의 「허생의 처」는 「옥갑야화」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나요?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읽고, 「옥갑야화」속의 ‘허생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을 3가지 정도 적어 보세요.

1.

2.

3.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읽고 나서 페이지 수를 기록하고, 허생의 처인 ‘나’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후에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와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을 적어 보세요.

① 다 어머니가 가르치신 바였다. 어쨌든 남편이었고, 살아 있다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었고, 난 기다릴 도리밖에 없었다.

(p )

②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p )

③ 난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 우리는 제가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p )

④ 난 그 때 똑똑히 알았다. 남편은 언제까지나 저렇게 신선놀음만 할 터이고, 난 언제까지나 굶주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p )

⑤ 당신은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때문이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꼭 할거예요……

(p )

### 3) 3차시

1차시에서는 「옥갑야화」 속의 ‘허생 이야기’를 다루고, 연암의 사상과 시대적 상황을 작품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가져와 수업을 진행한 2차시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시선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3차시에서는 2차시와 마찬가지로 고전의 현대화라는 주제아래 ‘허생’을 옛 것으로 보는 태도를 지양하고, 현대로 끌어올려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허생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재미있게 풀어 쓴 채만식의 「허생전」을 가지고 ‘허생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가 전달해 주는 내용을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모둠으로 진행되는 학습활동을 통해 「옥갑야화」 속에 감춰져 있는 연암의 속뜻과 당시의 시대상황을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수업 전개 계획

학년: 고1-2		교과: 국어		대단원명: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차시: 3/3	교과서: 채만식의 「허생전」
				소단원명: (2) 허생전		
학습 목표		1. ‘허생의 이야기’를 계승한 현대소설작품을 보고 내용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방법		모둠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토론식 학습법				
단계	학습 내용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반응		전체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난 시간에 부		5분	

준비하기	과제확인 목표확인		<p>여한 과제물을 환기시킨다.</p> <p>▣ 학습 목표를 상기시킨다.</p>	<p>·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p>		
반응형성하기	<p>학습순서 알아보기</p> <p>동기유발 글의내용 파악하기</p>	<p>개별학습 및 전체학습</p>	<p>▣ 학습 순서 알아보기</p> <p>▣ 전시내용과 채만식의 「허생전」 내용을 환기한다.</p> <p>· 각 모듈별로 두 작품을 비교하여 다른 점을 기록한 학습지를 꺼내 발표를 준비한다.</p>	<p>· 학습할 순서를 확인한다.</p> <p>① 과제물은 모듈별로 확인하고 의견 조정하기</p> <p>② 모듈별로 연암의 「허생전」과 채만식의 「허생전」을 비교·분석한다.</p> <p>-과제를 통해 미리 해결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모듈별로 의견을 조율한다.</p>	10분	<p>※ 작품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p>
반응명료화하기	<p>반응공유 하기</p>	<p>모듈학습 및 전체학습</p>	<p>▣ 모듈별로 분석한 채만식의 「허생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암의 작품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표하도록 한다.(약10분)</p> <p>·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고 상호 작용하도록 돕는다.</p> <p>▣ 당시의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채만식의 「허생전」</p>	<p>· 다른 조의 발표를 듣고 모듈별로 자신의 조와 다른 점이나 궁금한 점들을 질문한다.</p>	30분	<p>※ 두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과 시사삼책, 공간적 배경을 자유롭게 토의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본문 내용을 통해 간략히 정리한다. -이 활동은 이미 학습지에 나와 있으므로 간략히 중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약 10분)</p> <p>▣ 학생들의 발표를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준다. -두 작품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비교해주기</p>	<p>· 첫 번째 시간에 나눠 주었던 반응 학습지와 채만식 내용 학습지를 비교하며 작품을 이해한다.</p>		다.
반응 심화하기	정리하기 및 차시예고	전체학습	<p>▣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한다.</p>	<p>· 교사의 설명을 듣고, 다음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한다.</p>	5분	

## 나. 학습지

실시일	년	월	일	요일	반	조	이름
<p>작품을 읽으면서 (개별학습 및 모둠학습)</p>	<p>※채만식의 작품에서는 ‘허생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찾아 적고, 각각이 인물들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적어 보세요.</p> <p>※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와는 다르게 채만식의 「허생전」에서는 변진사와 이완대장이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간략하게 적어 보세요.</p>						

※다음은 강선달과 허생의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적어 보세요.

「선비라면 글이나 읽을 줄 알았지, 세태에는 통히 범연하고 어둔 줄 알았더니, 허생원 같으신 선비도 기셨습니다 그려.」

「.....」

「선비더러 물꼬를 막으라고 시키니까, 아래계를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하드라고요. 그래, 물꼬를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글로 쓰라고 하니깐, 물은 그 근원을 막아야 하는 법이니라고 써놓았드라지요. 허허」

「나라가 상하없이 이학(理學)만 숭상하고 실학(實學)을 업수이 여긴 탓이지요.」

「그래도 선비네는 세태에 어둡고 등한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선비 그 사람의 자랑일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네가 정사(政治)를 하니, 나라일이 말이 아니지요.」

※ 다음 글은 강선달이 쌀의 매점매석을 권하자 허생이 대답하는 말이다. 채만식의 허생은 ‘악하지 않게 모아 악하지 않게 쓰면’ 부의 축적이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연암의 ‘허생 이야기’에서는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변씨와의 대화 부분을 찾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악한 돈일랑 모으지 마시요 인자는 불부라는 말이, 세상 사람이 돈을 악하게 밖에는 모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난 말이지요. 악하지 않게 모아 악하지 않게 쓰면야 부자가 나쁠 머리아 없는 것이니깐요.」

	<p>※ 「본시야 다 양민이올시다 마는, 양민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 부득이 도적이 되었습니다.」 위의 대화는 채만식의 「허생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본문 39쪽과 98쪽을 참고하여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왜 도적들이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었는지 적어 보세요.</p> <p>※ 박지원의 작품에서는 북벌의 목적을 국치(國恥)를 씻는데 두었다. 채만식의 「허생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적어보고, 시사삼책(時事三策)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암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세요.</p>
--	---

위의 활동을 통해 연암의 작품과는 조금 다른 채만식의 「허생전」을 학습자들이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강선달과 대화를 나누며 학문이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현실에 밝은이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허생을 통해 연암의 실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변진사는 ‘인물을 돕기 위하여 돈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삼년간을 하인을 시켜 허생의 본집에 다달이 살림 뒤를 대는 한편 며칠 만에 한 번씩 스스로 찾아가 허생이 돌아온 여부를 묻다가 허생과 재회하는 인물로 드러나며, 이완 또한 ‘당당한 훈련대장의 지체로, 명색 없는 궁한 선비를 몸소 찾아본다는 것은 적지 않은 과격’이지만, 그런 것쯤에 구애되어 방금 큰 인물이 얼마든지 소용되는 이판에, 사람 찾아보기를 주저할 웅색한 사람은 아니’라고 제시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연암의 작품과는 다른 등장인물의 설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역사적인 서술이 드러나 있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허생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채만식의 작품은 연암의 ‘허생 이야기’보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작가의 의도를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학습지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냥 읽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학습자들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 4) 수행평가

이광수의 「허생전」은 그 분량이 너무 많고, 주어진 수업 시간에 작품을 읽히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수행평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작품을 읽고, 학습지를 채우는 것은 각 모듈별로 수행하도록 하며, 모듈 학습지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모듈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채만식의 「허생전」이 이광수와 연암의 작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이들 세 작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습지에서 연암의 작품과 비교하여 새롭게 삽입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한 것은 이를 통하여 연암의 ‘허생 이야기’와의 비교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연암의 ‘허생 이야기’와 비교하여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가된 장면은 5),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2), 25), 26), 28), 29), 33), 36)의 내용이다. 위의 내용들은 본고의 Ⅲ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연암과 채만식의 작품과는 다르게 이광수의 「허생전」에서는 ‘시사사책(時事四策)’이 제시되고, 이완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감 또한 이를 이룬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판단하여 학습지에 넣었다. 또한, 시사삼책(時事三策) 부분은 연암의 사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자, ‘허생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실시일	년 월 일 요일	반	조	이름
<p>작품을 읽으면서 (개별학습 및 모둠학습)</p>	<p>※이광수의 작품은 연암의 ‘허생 이야기’와 채만식의 「허생전」과는 다르게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변진사로 설정되어 있다. 연암과 채만식의 작품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보자.</p>			
	<p>※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광수의 「허생전」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 적고, 채만식의 작품과 비슷한 인물들도 찾아보자.</p>			
	<p>※연암의 ‘허생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여 만든 것이 이광수의 「허생전」이다. 연암의 작품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보자.</p>			
<p>※이광수의 작품 속의 제주도와 연암과 채만식의 「허생전」에 등장하는 제주도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보자.</p>				

※이광수의 「허생전」 84쪽부터 86쪽을 참고하여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도적이 된 연유를 적어보자.

※지난 시간에 박지원의 작품과 채만식의 「허생전」에서 북벌의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광수의 작품에서는 북벌의 목적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삼책(時事三策)의 내용을 적고,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의 두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세요.

### 3. 평가 계획

이 단원은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재조직하여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허생전’의 경우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허생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이 평가의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57)</sup>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평가는 가급적이면 모둠별로 실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전시에 과제로 부여한 내용 학습지는 개별화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며, 학습자들에게도 미리 평가 계획에 대해 알려주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단원에서의 평가는 반응학습지와 내용 학습지를 통한 개별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수업 중간 중간 주어지는 문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경우에도 점수가 주어질 것이다.

모둠학습을 통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모둠 점수 또한 참여도에 따라서 주어지며, 이를 통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5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국어(하)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 p.140

마지막에 주어지는 수행평가는 주어진 차시에 ‘허생 이야기’를 계승한 현대소설 작품들을 모두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모둠별 과제로 진행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광수의 「허생전」은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학생들 스스로가 작품을 읽고, 주어진 과제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연암과 채만식의 작품과 구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서 진행되었던 채만식의 「허생전」 학습지와 비슷하게 그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다. 이는 개별점수와 모둠별 점수로 합산될 것이며 이 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다.

## VI. 결론

「옥갑야화」는 옥갑에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이다. 도입 부분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부분이며 도입을 포함하여 7개의 글은 일정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옥갑야화」를 통해 ‘허생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고, 작품의 배경지식까지도 얻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단독 작품으로서의 「허생전」을 접하는 것보다 「옥갑야화」속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학습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생전」을 계승한 현대소설 세 작품 중 유일하게 「옥갑야화」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은 이남희의 「허생의 처」뿐이었다. 나머지 이광수와 채만식의 작품은 단독 작품으로 나와 있는 「허생전」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이광수의 작품에서는 변진사를 앞에 두는 설정을 통해 「옥갑야화」를 살짝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교학사구(상)교과서와 국어(하)교과서를 통해 우리 고전 「허생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려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교과서 모두 「허생전」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학습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교과서를 통해서도 뭘지 모를 허전함은 채울 수 없었다. 특히, 『국어(하)』 교과서의 지도방법은 「허생전」을 문학적인 감상을 위주로 가르치기 보다는 매체언어로서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습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또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열하일기』의 보충자료는 교과서의 실린 「허생전」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로서는 조금 난해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허생전」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교과서 모

두 이 작품의 소재지인 「옥갑야화」에 대해 어디에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실제 수업 모형을 모색해 보았다.

V장에 실린 「옥갑야화」의 실제 교수·학습 모형은 반응 중심 학습과 모듈학습을 주된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 「옥갑야화」속의 ‘허생 이야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을 함께 학습하도록 진행하여 연암의 작품을 계승한 현대 소설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이광수의 「허생전」과 채만식의 「허생전」, 그리고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이들 작품을 이해함으로써 원전인 박지원의 작품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법까지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고전 속의 ‘허생’을 현대로 연계하여 고전을 보다 쉽고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뒤에 주어진 학습지는 학습자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읽어왔는지,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평가지는 학습의 진단과 학습자의 이해도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심화·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고전을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가 그러한 생각을 바꿔 줄 또 다른 보완책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옥갑야화」속의 ‘허생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학습자들이 작품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허생전」의 지식적인 측면과 함께 흥미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 계획이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 자료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해설서.

고등학교 7차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김윤식 외, 『문학(상)』, 도서출판 디딤돌, 2007.

김윤식 외,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도서출판 디딤돌, 2007.

구인환 외, 『문학(상)』, (주)교학사, 2007.

구인환 외,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7.

박경신 외, 『문학(상)』, (주)금성출판사, 2007.

박경신 외,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2007.

박지원(구인환 엮음), 『허생전』, (주)신원문화사, 200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20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오세영 외, 『문학(상)』, 대한교과서, 2007.

오세영 외,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2003.

## 2. 단행본

강동엽, 『열하일기연구』, 일지사, 1988, pp.104~109.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도서출판 그린비, 2009.

고미숙 외,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下』, 도서출판 그린비, 2008.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pp.224~246.

- 김수업 외, 『한 푼도 못되는 그놈의 양반』, 나라말, 2007.
- 김영동, 『연암 박지원 소설연구』, 태학사, 1988, pp.75~82.
-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 김혈조, 『열하일기3』, 돌베개, 2010.
- 김희수, 『예비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일문사, 2005.
- 박기석, 『박지원 문학연구』, 삼지원, 1984, pp.73~75.  
『연암소설의 심층적 이해』, 집문당, 2008.
-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2005.
- 박지원, 『나는 꺾꺾 선생이라고』, 보리, 2004.
- 박지원,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하)』, 보리, 2004.
- 신병주, 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pp.196~214.
- 이가원,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965, pp.585~734.
- 이가원 외, 『청소년을 위한 연암 박지원 소설집』, 서해문집, 2008.
- 리가원·허경진, 『연암 박지원 소설집』, 한양출판, 1999.
- 이광수, 『이광수전집3』, 삼중당, 1964.
- 이남희,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R&D Book, 2002, pp.1~30.
-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pp.95~135.
- 이석래, 『조선후기 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pp.123~138.
- 이성호, 『교수방법론』, 학지사, 2004.
-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pp.135~138.
-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도서출판 연락, 2004.
- 채만식,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pp.207~270.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주)사회 평론, 2009.
- 최시한,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2003.
- 최원식, 「채만식의 고전소설 패러디에 대하여」, 『민족문학의 논리』, 창

작과비평사, 1982.

한국고소설학회,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도서출판 월인, 2005.

황폐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대출판사, 1978, pp.339~348.

### 3. 논문

강창순, 「고등학교 국어과 고전소설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7, pp.14~52.

김경민, 「〈허생전〉의 패러디 소설 연구: 이광수와 채만식의 「허생전」 중심으로」, 세종대 교육대학원, 2007.

김경화, 「〈옥갑야화〉의 구조분석을 통한 ‘허생전’의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김미영, 「〈허생전〉 패러디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 『비평문학』 24호, 2006.

김송희, 「〈허생전〉과 현대 패러디 소설 비교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2007.

김수업, 「옥갑야화의 짜임새와 속뜻」, 『배달말17』, 1992.12.

김영준, 「〈옥갑야화〉 분석」, 서강어문학회, 1984.

김일영, 「채만식의 소설 〈허생전〉에서의 제재변용양상 고찰」, 「문학과 언어」 13집,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1992.

, 「행위공간의 회귀와 인식공간의 확대」, 『한국어문학회』 53호, 1992.

김정문, 「〈허생전〉지도 실제」, 배달말교육학회, 1991.

김종철, 「〈옥갑야화〉이해의 시각」,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0.

김진영,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

- 학원, 2008, pp.1~20.
- 김철, 「〈허생전〉의 작품세계와 교육적 의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6, pp5~44.
- 신동환, 「〈옥갑야화〉와 〈허생전〉의 관련 양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신익호, 「〈허생전〉 다시 읽기」, 『어문연구』 52호, 2006.
- 안정민, 「고전소설 지도 방안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2006, pp.6~94.
- 이미란, 「한국 현대 패러디 소설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8.
- 이영호, 「〈허생전〉의 교재화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3집, 2007.
- 이은식, 「〈허생전〉가르치기」, 배달말교육학회, 1996.
- 이종복, 「읽기교육에 있어 문학적 접근: 독자반응이론」,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6.
- 이현국, 「〈허생전〉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 문학과 언어 제13집, 1992.
- 장석규, 「국어 교과서의 〈허생전〉 수용과 그 문제점」, 2002.
- 전홍남, 「채만식의 〈허생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 『국어국문학』 109호, 1993.
- 조재운, 「이러닝 체제에서의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방법 탐색-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한국 국어교육학회, 2010.
- 최장원, 「허생전의 현대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6, pp.8~48.

# ABSTRACT

## 「a tale of Heo-saeng」 explore ways and means of education

Lee Eun Jin

Dept. of Korean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tudy, 「Okgapyahwa」 a part of the 『Yeolha diary』 and 「Okgapyahwa」 liked ‘Heo-saeng story’ that has become the center of the overall content focuses the mind. Based on this study as a single work, 「a tale of Heo-saeng」 rather than dealing with 「Okgapyahw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verall ‘Heo-saeng story’ to teach will bring, if any effect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should start. For this paper, first, 「Okgapyahwa」 fine-structure analysis of current textbooks, and then by modifying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al training of the classic novel to a little more efficiently was investigated.

First previous 「a tale of Heo-saeng」 in any direction of the training is conducted by a professor to learn about. Learning to

exercise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field problems of the existing textbook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a tale of Heo-saeng」 As for the high school textbook 「Okgapyahwa」 dealt with the matter, or 「a tale of Heo-saeng」 as the source is not saying that violating the Language Arts textbooks were diagnosed with the largest error.

Despite these problems, more effective, 「Okgapyahwa」 in the ‘Heo-saeng story’ to educate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directions. The details are as follows.

Yeon-Am as a Silhakja 『Yeolha Diary』 their claims showed through, in situations marked by fierce party struggles of his ideas could be expressed directly because the 「Okgapyahwa」 in the ‘Heo-saeng story’ Bukbeol policy through the availability of the fraud uncovered and hypocrisy and incompetence of the elite floor, has criticized the false consciousness. Therefore, Yeon-Am in the portion exposed to intensive thought 『Yeolha diary』 Among 「Okgapyahwa」 in the ‘Heo-saeng story’ can be said.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work of an artist’s intention faithfully to pass on the suit, als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f thought of in terms of the overall framework is in the right way to teach was diagnosed. Thus, this study 「a tale of Heo-saeng」 put in the framework of the overall relevance of contents to find an organic writer’s age and the need to understand the intent was that the demonstration.

Classic recreations of new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are small. But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has not kept up with it,

standing like an iteration is done and filled the water to continue. Park Ji-won, wrote 'Heo-saeng story' in the history of the 18th century is not at rest in the later literature as the sanctions are constantly being reborn. The story of the past in the present literature is that the sanctions are 'classical modernity' is the preferred method in terms of modern times, why encourage readers 'Heo-saeng storyt' literary interests were able to continue with the questions begin to pay self-sufficient role.

Forward to learning more interesting classical and modern, and to link the plan to notify you need one, here's a shame such measures do not realize just a few. Would be tedious and boring classics in order not to hear the former only being just to teach the classics, rather than creating a modern education need to be, I do not fill the training has it. In this study, 'Heo-saeng' just reviving an old but modern education to realize that I need desperately, for ways to solve this problem, 「a tale of Heo-saeng」 Inheriting the modern novel to explore three works were focused on.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over three times and actual teaching. Master Plan was prepared, the reaction center of learning and group learning was the main form of progression. This learner 「Okgapyahwa」 in the 'Heo-saeng story' to know the true meaning of being modern successor novels went through it a little more depth of understanding nuclear, classical training in traditional memorization-oriented education instead of classical and contemporary connections will be expected to arrange passage.

**Key words:** Park Ji-won's 「a tale of Heo-saeng」, 『Yeolha diary』, 「Okgapyahwa」, 「Okgapyahwa」 in the 'Heo-saeng story, Lee Kwang-soo's 「a tale of Heo-saeng」, Chae Man-sik the 「a tale of Heo-saeng」, Lee Nam-hee the 「Heo-saeng's wife」, reader reaction theory, reaction-based learn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lassic